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ばなな)문학에 있어서의

<잠>과 <꿈>에 대한 고찰

- 「백하야선(白河夜船)」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李 素 靜

2012年 8月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ばなな)문학에 있어서의

<잠>과 <꿈>에 대한 고찰

- 「백하야선(白河夜船)」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蘇明仙

李素靜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8月

李素靜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2年 8月

<국문초록>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ばなな)문학에 있어서의

<잠>과 <꿈>에 대한 고찰

- 「백하야선(白河夜船)」을 중심으로-

李素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蘇明仙

1994년 요시모토 바나나는 에세이집 『꿈에 대하여(夢について)』(幻冬舎, 1994.8)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바나나가 체험한 신비한 꿈이야기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그녀의 소설작품에서 그려지는 꿈의 양상과 대단히 유사하다.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꿈은 바나나의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모티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꿈은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 가능한 공간이다. 현실과 비현실 세계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나나에게 있어 꿈은 그녀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를 가장 쉽게 접근시킬 수 있는 영역일 것이다.

바나나의 작품 속에 나타난 꿈은 고대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예시적인 꿈과 현대소설에서의 소망과 불안 등 심리를 반영하는 꿈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바나나의 작품에서 꿈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작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논자는 바나나문학 속의 잠과 꿈에 주목하였다. 1989년작인 「백하야선(白河夜船)」을 텍스트로 하여 등장인물들의 잠의 형태로 본 ‘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꿈의 양상과 꿈을 통한 인물들의 내면상태의 변화를 통해 바나나 문학 속의 ‘꿈’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백하야선」에 있어서의 잠은 현실 도피의 수단과 치유라는 긍정적 의미와 계속 이어지는 과잉된 잠은 곧 죽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주인공 테라코는 현실의 고통과 불안함을 잊기 위해 꿈의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잠이 과잉됨에 따라 잠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와나가의 아내가 식물인간인 상태로 계속되는 잠을 자는 것과 같이 테라코에게 나타난 과잉된 수면은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시오리의 잠은 상처를 입고 지친 사람들을 편안한 잠으로 인도하고, 꿈의 공유를 통해서 타인의 고뇌를 흡수하여 그들을 치유한다. 하지만 정작 시오리 자신은 치유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시오리의 잠은 자신의 희생으로 타인을 위로하는 치유의 의미를 가진다.

바나나의 작품 속에 그려지는 꿈은 무의식적 감각과 그로 인한 기억이 재생된 꿈으로 미래의 일을 암시하거나, 환영의 역할과 같이 죽은 사람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등 인물들의 내면상태와 맞물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바나나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꿈을 통해서 상처받은 내면이 치유되기도 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는 등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간다.

이와 같이 바나나작품에 나타난 잠과 꿈은 다양한 양상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른 현대 작가들은 꿈을 어떻게 형상화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나나 작품에 나타난 꿈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비교 분석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바나나 작품만이 가지는 독특한 꿈의 세계를 고찰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 앞으로 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바나나 작품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바나나작품만이 가지는 꿈의 양상과 의미를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목차

### 국문초록

I. 서론 .....	1
1. 연구목적과 의의 .....	1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4
II. 본론 .....	10
1. 꿈의 의미 .....	10
2. 꿈과 문학 .....	12
3. 「백하야선(白河夜船)」에 있어서의 <잠>의 의미 .....	14
3-1. 테라코(寺子)의 잠 .....	15
3-1-1. 현실도피 .....	15
3-2-2 죽음 .....	21
3-2. 이와나가(岩永)의 아내의 잠 - 죽음 .....	25
3-3. 시오리(しおり)의 잠 - 치유 .....	26
4. 요시모토 바나나 작품에 있어서의 <꿈>의 양상 .....	29
4-1. 무의식의 반영 .....	29
4-1-1. 소망 .....	29
4-1-2. 불안 .....	34
4-2. 꿈을 통한 소통 .....	35
4-2-1. 예지(豫知) .....	36
4-2-2. 치유 .....	37
III. 결론 .....	45
참고문헌 .....	49
ABSTRACT .....	52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의의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한 명인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ばなな)<sup>1)</sup>는 데뷔작인 『키친(キッチン)』(「海燕」1987.11)을 시작으로 <바나나 현상><sup>2)</sup>을 몰고 왔다. 그녀의 작품은 유럽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탈리아에서는 1993년, 1996년, 1999년에 이어 2011년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sup>3)</sup> 바나나는 소위 <바나나 신화>를 만들어 내며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바나나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죽음’이라는 무거운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고, 인물들은 제각기 다양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소재가 결코 슬프거나 무겁게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담담하고 밝게 그려지기도 한다.

---

1)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ばなな) - 1964년 도쿄(東京) 출생. 본명은 요시모토 마호코(吉本真秀子)이다. 문학 평론가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수많은 책더미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진보적 사상가이자 유명한 문학평론가인 요시모토 다카야키(吉本隆明)이다. 열대 지방에서만 피는 붉은 바나나 꽃을 좋아하여 ‘바나나’라는 성별 불명, 국적 불명의 필명을 생각해 냈다고 하는 그녀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열성 팬을 가지고 있다. 1987년 일본대학 예술학부를 졸업하면서 졸업 작품으로 쓴 「달빛 그림자(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로 「예술학부부장상(藝術學部部將賞)」을 수상했고, 문단 데뷔작인 『키친(キッチン)』으로 「카이엔 신인문학상(海燕新人文学賞)」, 「이즈미 료카상(泉鏡花文学賞)」을 받았다. 1989년 『TUGUM』로 제 2회 「야마모토슈고로상(山本周五郎賞)」을 받는 등 발표작마다 각종 문학상 수상으로 주목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キッチン』(1988), 『TUGUM』(1989), 『哀しい予感』(1988), 『とかげ』(1993), 『N.P』(1990), 『ハチ公の最後の恋人』(1994), 『アマリタ』(1994), 『ハネムーン』(1997), 『ハードボイルド/ハードラック』(1999), 『不倫と南美』(2003), 『デッドエンドの思い出』(2006) 등이 있다. 필명은 吉本ばなな였으나, 출산을 계기로 『왕국(王國)』(2002)부터는 필명을 바꿔서よしもとばな나로 활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하, 바나나로 기술하기로 한다.

2) 바나나현상: 연달아 히트하는 작품 덕분에 바나나는 일약 시대의 총아가 된다. 출판계를 석권한 바나나 열풍은 영화·만화·음악·미술 등 다른 문화에도 확산되었다. 「毎日新聞 신문」(1989.10.28)은 이것을 <바나나 현상>이라고 명명하였다.

김용안 「요시모토 바나나의 『죽음보다 깊은 잠(白河夜船)』론」(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34호, 2009.5) p.61

3) 1993년 6월에 『키친』으로 이탈리아 스칸노상을 수상하였고, 1996년 3월과 1999년 11월에는 「N.P」로 각각 이탈리아 쾨네시메상과 이탈리아 은빛마스크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에는 뛰어난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이탈리아의 문화상인 카프리카상을 수상하였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http://www.aladin.co.kr/author/wauthor\\_overview.aspx?AuthorSearch=@29251](http://www.aladin.co.kr/author/wauthor_overview.aspx?AuthorSearch=@29251)) (검색일자: 2012.5.1)

JPNEW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0054&section=sc1](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0054&section=sc1))(검색일자: 2012.5.1)

일본 전후의 대표적인 평론가이자 바나나의 아버지인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가 바나나의 소설이 세계적인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녀의 작품 안에는 “상냥함과 치유의 감정”<sup>4)</sup>이 흐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데뷔작 『키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바나나가 그녀의 문학세계에서 추구해 왔던 것은 ‘치유’이다. 상처투성이고 힘든 현실에서 치유와 위로를 바라는 현대인의 초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 독자들이 그녀의 소설에 열광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바나나는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자신의 작품을 오컬트(occult)<sup>5)</sup>, 사랑(love), 죽음(death), 삶(life)이라는 제목으로 자선선집(自選選集)<sup>6)</sup>을 출판했다. 이 자선선집을 묶는 방법이나 목차는 바나나 자신이 결정한 것인 만큼 이 네 개의 키워드는 바나나의 작품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오컬트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일상에서 일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적절히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긍정하는 작가의 의도이며,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극적인 소재<sup>7)</sup>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컬트적 요소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비현실과 현실의 공존이 가능한 꿈일 것이다.

4) “君の小説の読まれ方とか、何故たたくさんの人に読まれてるかっていうと、要するに君の作品の中には優しさとか癒しの感情っていうのが流れてる。その癒しの感情っていうのは宗教的とはちょっと違うんだけど、それ読んでもなんとなくいらいらあ現世の苦勞みたいな、生活の苦勞とか日常あるやなこととかを忘れられるみたいなね、そういう一種の、優しさって言うていいのか、癒しとっていいのかわかんないけど、そういうのがあるんだよ。”

吉本隆明 吉本ばなな 『吉本隆明×吉本ばなな』(ロッキングオン, 1997.2) p.118

5) 오컬트(Occult) 또는 비학(秘學)은 물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초자연적 현상, 또는 그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참고로 오컬티즘[occultism]은 자연 또는 인간의 숨어 있는 힘이나 현상을 연구하는 비학(occult arts or sciences)의 총칭 및 그것을 실용화하려는 태도. 은비학(隱秘學) 또는 은비론(隱秘論) 등으로 번역된다. 라틴어의 occultus(감추어진 것)가 그 어원이다. 비학이란, 과학적 연구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초경험적(超經驗的) 여러 원리를 믿고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비전(秘傳)에 의해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전수(傳授)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특색이다. 여기에는 주로 마술·점성술·연금술·점복술·신지학(神知學)·강신술(降神術)·심령술 등이 포함된다.  
(두산세계대백과: <http://www.doopedia.co.k>) (검색일자: 2012.1.5)

6) 바나나는 자신의 작품들을 네 가지의 테마로 묶어서 자선선집 4권을 출판하였다. 『吉本ばなな自選選集〈1〉Occult オカルト』(新潮社, 2000.11)에 수록된 작품으로는 「アムリタ」, 「ある体験」, 「血と水」, 「ハードボイルド」, 「血と色」가 있고, 『吉本ばなな自選選集〈2〉Loveラブ』(新潮社, 2000.12)에는 「白河夜船」, 「ハチ公の最後の恋人」, 「ハネムーン」, 「大川端奇譚」, 「ミイラ」, 「バブーシュカ」가 수록되어 있다. 『吉本ばな나自選選集〈3〉Deathデス』(新潮社, 2001.1)에 수록된 작품에는 「キッチン」, 「満月ーキッチン2」, 「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 「N:P」, 「ハードラック」, 「野菜スープ」가 있으며, 『吉本ばな나自選選集〈4〉Lifeライフ』(新潮社, 2001.2)에는 「TUGUMI」, 「とかげ」, 「おやじの味」, 「新婚さん」, 「ひな、菊の人生」, 「哀しい予感」, 「ある光」이 수록되어 있다.

7) 최상희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초기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재생 연구: 『키친(キッチン)』·『만월(満月)』·『달빛그림자(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를 중심으로 (『キッチン』·『満月』·『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를 中心に/吉本ばな나의初期作品に現れた死と再生の研究)」(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p.59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갖고 있는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다. 낮의 세계에서 실현시킬 수 없었던 욕구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분노하고 좌절했던 요구나 소망을 충족해 주는 출구이다.<sup>8)</sup> 바나나의 작품에서도 등장인물들이 꾸는 꿈은 그들의 무의식의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현실에서의 소망이나 불안이 꿈으로 표출되거나 보고 싶은 이들을 꿈에서 만나기도 한다. 꿈은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초자연적 현상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복잡한 내면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그렇기에 바나나는 꿈의 다양한 묘사를 통해서 꿈이라는 소재 자체의 자유자재와 리얼리티를 현실 속에 적절히 구현하고, 비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의 공존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다.<sup>9)</sup> 이때 꿈은 결코 허상적인 세계가 아니다. 등장인물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캐스린 흄(Kathryn Hume)은 꿈을 포함한 환상을 문학사의 특정 시기에 생성·확산된 장르로 인식하거나 저급 문학, 주변 문학이라는 종래의 관념에 저항하였다. 그래서 그 자체를 ‘문학의 충동’으로 간주하고,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것들이 갖는 제약에 대한 의도적인 이탈, 즉 같은 모양의 리얼리티로부터의 이탈이라 하였다. 문학에서의 환상은 인간의 심리학적 욕망의 투영물으로써 내면에서 가시적 설득력을 얻는 것이고, 꿈은 은폐되고 억압된 욕망의 발로이며 충족과 도피로서 나타난다. 이는 꿈은 비현실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투영이기 때문에 꿈으로 표방되는 세계에는 ‘충족’과 ‘도피’라는 두 가지의 중층적인 은유·암유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현실과 비현실의 교차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비현실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바나나에게 있어 그녀가 표방하는 오컬트의 세계를 가장 쉽게 접근시킬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꿈일 것이다. 꿈은 무의식적 감각과 그로 인한 기억이 재생된 꿈으로 미래의 일을 암시하는데 쓰이거나, 환영의 역할과 같이 죽은 사람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등 인물들의 내면상태와 맞물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꿈이 내면의 불안과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창조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

8)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안병웅 옮김 『꿈의 해석』 (풀빛, 2006. 9) p.8

9) 이준언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암리타(アムリタ)』론: 작품에 나타난 오컬티즘 분석」(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8) p.31

10) 캐스린 흄(Kathryn Hume)지음·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4) pp.103-108

주는 것과 같이, 바나나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꿈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기도 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는 등 상처를 딛고 다시 살아간다.

1994년 바나나는 에세이집 『꿈에 대하여(夢について)』(幻冬舎, 1994.8)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바나나가 체험한 신비한 꿈이야기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그녀의 소설작품에서 그려지는 꿈의 양상과 대단히 유사하다.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꿈은 자신의 꿈 체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꿈은 바나나의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모티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바나나의 작품은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이고, 초능력과 환상 등 신비스러운 일들이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 자주 등장하여 작품을 읽다보면 마치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왼쪽 어깨에 ‘도깨비Q타로우(オバケのQ太郎)’ 문신을 새길 만큼 바나나<sup>11)</sup>는 에세이집 『꿈에 대해서(夢について)』(幻冬舎文庫, 1997.8)에서 자신은 어릴 적부터 순정만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私は乳兒から幼兒にかけて目が悪く、いつも眼帯をしていました。悪いほうの眼に眼帯をしている場合は片目が見えていていいのですが、訓練のためいいほうにしている時は世の中はほとんど真っ暗、失明と同じでした。だからいいほうの目に眼帯をする場合、その前に好きなことをしておかねば、と思う時私はいつも、「オバケのQ太郎」をむさばり読んでいました。その必死さといったらもう、砂漠をさすらう民が何日かぶりに発見したオアシスでごくごく水を飲み干すような熱いでした。字がかろうじて讀めたのが三歳くらいで、漫画は完全に理解できました。だから七つ年上の姉がアトムに初戀して

11) Q. 入れ墨をしているそうですが、どんな柄の入れ墨をどこに彫ったのですか?

A. 右の太ももにバナナを、左肩にオバケのQ太郎を彫っています。

よしもとばなな 공식 사이트 (<http://www.yoshimotobanana.com>) (검색일자: 2011.12.15)

참고로 「도깨비 Q타로우(オバケのQ太郎)」는 바나나가 가장 처음으로 읽은 픽션이라고 말한 바 있다.

吉本バナナ 『ばなな讀本- B級BANANA』(角川書店, 1999.5) p.43

いた頃、私はドロロンパに初戀していたわけです。(中略)人間と人間以外のものが同居するむつかしさがかなり現實的に描かれていたのです。今となってはそこに眞實の重みを見出すことができますが、その時の悲しい私、頼まれるものは家族の愛と空想の友人だけだった私には重すぎました。だから私はもっぱら藤子ワールドの楽しい友人たちと、ひとりの時間、目の見えない時間を過ごしていたのです。そのアナザーワールドには死や使命はなく、日常と、日常の中の非日常が描かれていて、そこに眞實味をかぎとったのでしょう。

(나는 유아였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까지 눈이 나빠서 항상 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한쪽 눈이 보여서 좋았지만, 훈련을 위해 좋은 쪽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세상은 아주 캄캄한 실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의 눈에 안대를 할 경우, 그 전에 좋아하는 일을 해 두지 않으면 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항상 ‘도깨비 Q 타로’를 옥심내서 읽었습니다. 그 필사적이라고 한다면, 사막을 헤맨 사람이 며칠 만에 발견한 오아시스에서 꿀꺽꿀꺽 물을 다 마시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글을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던 때가 세 살쯤으로 만화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살 위의 언니가 아톰과 첫사랑을 하고 있을 무렵, 나는 도톰과와 첫사랑을 하였습니다. (중략)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이 동거하는 어려움이 꽤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거기에 진실의 무게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때의 슬픈 나, 의지했던 것은 가족의 사랑과 공상의 친구 뿐 이었던 나에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후지코 월드의 즐거운 친구들과 혼자만의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세상에는 죽음과 사명은 없고, 일상과 일상 속의 비밀상이 그려져 있어서 그것에서 진실미를 알아챈 것입니다.)

(『夢について』 pp.130-131)

약시로 인해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다녔던 어린 시절의 바나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은 만화였다. 만화와 만나는 바나나의 상상력을 높이고, 공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나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오컬트와 감성적인 문체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나나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마쓰자와 마사히로(松澤正博)는 『하루키 · 바나나 · 겐이치로—시대의 감수성을 흔드는 세 개의 시그널(ハルキ · バナナ · ゲンイチロ—時代の感受性を揺らす三つのシグナル)』(靑弓社, 1989.9)에서 “바나나의 데뷔 이전부터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문학성을 획득한 것은 소녀만화이며, 그로 인해 눈이 높아진 독자에게 얼마나 문학성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시점에서 성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답한 사람이 요시모토 바나나”<sup>12)</sup>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일본풍경론6(日本風景論6)」(「群像」1989.6)에서 소녀만화적인 성격을 타자성과 리얼리티의 결여라고 말하며 비판하고 있다.<sup>13)</sup> 그리고 다카하시 하라이치로우(高橋原一郎)도 『문학을 이렇게 알아도 좋을까(文學がこんなにわかっていいかしら)』(福武書店,1989.4)에서 바나나 소설의 전개 방법, 캐릭터 설정, 풍경의 기입 등이 소녀만화와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다.<sup>14)</sup>

바나나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이 그리고 간결하고 담백하게 문장을 써 내려가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마쓰모토 다카유키(松本孝幸)는 『요시모토 바나나론-「보통」이라는 무의식(吉本ばなな論 - 「フツー」という無意識)』(JICC出版社, 1991.7)에서 “섬세한 감수성과 절제된 문장은 기성문학의 표현상 터부와 틀을 깨뜨렸다.”<sup>15)</sup>라고 평하며 간결한 구어적 문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바나나는 작품을 보면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중요한 모티브로 쓰고 있지만 분위기는 결코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다. 오히려 죽음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가볍게 느끼게 한다. 세이카이 켄(青海健)은 「틀에 박힌 형식과 죽음과(絞切り型と死と)」(「群像」1990.11)에서 바나나는 모든 이야기에 죽음으로부터 재생, 즉 ‘죽음’- ‘회복’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품이 어둡지 않다고 하였다.<sup>16)</sup>

12) “少女コミックとのホモジェニティ(同質性)についていうならば、だからすばらしい、ということなのだ。少女コミックは、コミックとして出発しながらも、吉本ばななのデビュー以前において、もっとも本質的な意味における文学性を獲得してしまっていた。だから吉本ばななのデビューの時点における文学の課題は、誰がいかにして、少女コミックの地点に立ちうるか、その豊かな土壌を継承しうるか、少女コミックによって目のこえたた読者に、いかに文学性を供給するのか、ということだったのだ。この課題に、誠実に、そてて見事に応ええた現代作家のひとりが、吉本ばななであった。”

松沢正博 『ハルキ・ばなな・ゲンイチロ - 時代の感受性を揺らす三つのシグナル』(青弓社, 1989.9) p.92

13) 고미영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속에 나타난 가족 붕괴의 의미: 제 1기 작품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6) p.2 재인용

加藤典洋 「日本風景論(6)」(「群像」1989.6) p.22 참조

14) 与那覇恵子 「身体性と幻想-「アムリタ」を中心に」(「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1994.2) p.125 재인용

高橋原一郎 『文学がこんなにわかっていいかしら』(福武書店, 1989.4) 참조

15) “吉本ばななの小説には、現代の「フツー(普通)」の無意識が加担していると思う。「フツー」に感じることを「フツー」に表現することが、鋭敏な感受性を持って凝りに凝った文章で描写することでかえって堅苦しくなってしまった既成の「文学」の表現上のタブーや枠組みを、鮮やかに打ち破ってしまったのだ。”

松本孝幸 『吉本ばなな論 - 「フツー」という無意識』(JICC出版社, 1991.7) p.17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바나나가 작품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녀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바나나의 작품에 대한 비평의 초점은 대부분 소녀만화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소녀만화적이고, 일상 대화 같은 구어적 표현과 무겁지 않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바나나의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sup>17)</sup>

국내에서 바나나에 관한 연구는 그녀의 소설의 인기에 비해 뒤늦게 시작했고, 2000년 초반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바나나의 작품에서 ‘가족’은 중요한 모티브이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에 나오는 죽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혈연으로 뭉친 집단’이 아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 고착하여 고미영은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속에 나타난 가족 붕괴의 의미 : 제 1기 작품을 중심으로」(2004.6)에서 “요시모토 바나나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인간의 유대를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 ‘가족’이란 형태를 이용한 것”<sup>18)</sup>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가족 형태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김화용은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의 ‘가족상’ 연구」(2010.2)에서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해체되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공유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sup>19)</sup>고 보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가족해체와 새로운 가족상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죽음 또한 바나나 작품에 전반적으로 그려지는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의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키친』 고찰 : 죽음과 그 치유 양상을 중심으로」(2005.8)와 이진이의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과 <죽음>」(2010.2)<sup>20)</sup>

16) 김영주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키친』 고찰 : 죽음과 그 치유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8) p.3 재인용

“たしかに、古今の文学を通じて、「死」は物語そのものの原動力というべきものである。吉本はそれを常に作品の中軸に据えることで、逆に作品を、そこからの再生という物語へと奉仕させることをもくろむ。この「死」と「恢復」というモチーフこそ吉本のすべての物語を貫くものである”

青海健 「絞切り型と死と」(「群像」1990.11) p.261 참조

17) 바나나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 어느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結局、どの国でだれが読んでもわかるってことでしょう。そのためにこちらあらゆる手段を尽くして小説の世界を作り上げている。日本人の特定のグループにしかわからないもの、というのが一番嫌い”

「吉本ばななに聞く」(「読売新聞」, 夕刊, 1993.5.13)

18) 고미영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속에 나타난 가족 붕괴의 의미 : 제 1기 작품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6) p.72

19) 김화용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의 '가족상'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2) p.65

에서는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닌 출발점으로 보아 거기서부터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야기를 재생시켜 나가고 있는 것”<sup>21)</sup>이라고 논하며 죽음을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담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다. 최상희도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초기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재생 연구: 『키친(キッチン)』·『만월(滿月)』·『달빛그림자(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를 중심으로(『キッチン』·『滿月』·『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を中心に/吉本ばななの初期作品に現れた死と再生の研究)」(2006.8)에서 죽음으로부터 인물들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 가는지를 살펴보면 “죽음을 단순히 슬프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새로운 출발의 하나로 재생시켜 나가고 있다”<sup>22)</sup>고 말하며 죽음과 치유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한편,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바나나이기에 그녀의 작품에 오컬트의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오컬트에 대해서 이준언은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암리타(アムリタ)』론 : 작품에 나타난 오컬티즘 분석」(2004.8)에서 “오컬트적 장치를 통해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는 연결되어 함께 존재하고, 오컬티즘이라는 소재의 사용은 현대의 대중 코드와 부합하여 대중과 격이 없는 문화의 동질감을 갖고 있다”<sup>23)</sup>고 논하며 오컬티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은형은 「요시모토 바나나와 신경숙의 비교연구 -감각표현과Occult-」(2008.10)에서 “Occult적 모티브는 같이 살아가면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고, 직면하게 된 문제의식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느끼고 이것을 일상의 감각적 기억으로 극복해 가고 있다”<sup>24)</sup>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의 논문들은 대부분 ‘죽음과 재생’, ‘상처와 치유’, ‘가족’, ‘오컬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나나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이긴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바나나 작품

20) 이진이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과 <죽음>」(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2) p.71

21) 김영주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키친』 고찰 : 죽음과 그 치유 양상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8) p.56

22) 최상희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초기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재생 연구 : 『키친(キッチン)』·『만월(滿月)』·『달빛그림자(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를 중심으로 (『キッチン』·『滿月』·『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を中心に/吉本ばななの初期作品に現れた死と再生の研究)」(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8) p.78

23) 이준언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암리타(アムリタ)』론 : 작품에 나타난 오컬티즘 분석」(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 p.42

24) 이은형 「요시모토 바나나와 신경숙의 비교연구 -감각표현과 Occult-」(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제28집, 2008.10) p.383

에 대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 치우쳐 있다.

논자와 같이 바나나문학에 있어서의 잠과 꿈에 주목하여 그 의미와 양상을 고찰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김용안의 「『죽음보다 깊은 잠(白河夜船)』론 - <잠>을 중심으로」(「외국문학연구」 34호, 2009.5)는 논자와 마찬가지로 『백하야선』에 나타나는 잠에 주목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김용안은 잠의 긍정적인 부분에만 분석하고 있기에, 작품 속에 나타난 잠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부족하다. 25)

논자는 지금까지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았던 바나나문학에 있어서의 잠과 꿈에 주목한다. 바나나의 제1기 작품<sup>26)</sup>중 특히 「백하야선(白河夜船)」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잠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잠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꿈의 양상을 살펴보고 꿈을 통한 인물들의 내면상태의 변화를 바나나 문학에 있어서의 ‘꿈’의 의미를 고찰한다.<sup>27)</sup>

먼저 본론의 제1장에서는 바나나문학의 잠과 꿈을 분석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꿈의 의미와 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꿈과 문학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문학 속에 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작품 「백하야선(白河夜船)」에 나타난 잠에 대해 분석한다. 등장인물의 잠의 형태를 분류하고 각각의 잠의 의미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바나나 작품에 나타난 꿈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등장인물의 내면심리가 어떠한 꿈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꿈을 꾸 후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통해 바나나문학에 있어서의 꿈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한다.

---

25) 김용안은 「『죽음보다 깊은 잠(白河夜船)』론 - <잠>을 중심으로」(「외국문학연구」 34호, 2009.5)에서 『백하야선』에 나타난 잠의 형태를 분석하고, 구원과 위기모면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잠의 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인간치유의 가능성으로서 규정짓고 있다.

26) 바나나는 자신의 작품 활동 시기의 구별에 대해 “この世に偶然というものがないとしたら、『アマリタ』という小説で、『キッチン』から続いてきた<第一期吉本ばなな>は終わったと考えています。多分、これからはまた別人のようになって、まったく違ったものを書いていでしょう。(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암리타』라는 소설에서, 『키친』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제 1기 요시모토 바나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전혀 다른 것을 써 나가겠죠.)”라 언급하고 있다. 즉, 『암리타』까지를 제 1기 작품으로 보고 그 이후의 작품은 제 2기라고 자작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바, 논자도 이에 근거하여 바나나의 작품시기를 구분한다.

吉本バナナ『ばななのばなな』(メタログ, 1994. 1) p.301

27) 본문 인용문은 페이지만 표시하며, 인용문의 원문 해석은 논자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 II. 본론

### 1. 꿈의 의미

인간은 삶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며, 그 3분의 1은 꿈을 꾸는다고 한다.<sup>28)</sup> 꿈을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불길한 꿈을 꾸고 걱정스러워하거나, 좋은 꿈을 꾸고 설렘과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던져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꿈은 신비로움에 싸여있고,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꿈이 대개 논리성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변형물들이 뒤죽박죽 아무렇게도 얽게 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꿈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사람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였다.<sup>29)</sup> 그는 꿈을 ‘소망 충족’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식 속에 억눌리고 잠재되어 있던 의식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어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30)</sup>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융(Carl Jung)은 꿈을 ‘집단적 잠재의식의 표출’이라고 말하며 꿈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윤리적 등 인생의 모든 측면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하고, 꿈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현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의 원형을 찾아내어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sup>31)</sup>

프로이트와 융 이래로 많은 정신분석학자와 심리학자를 비롯하여 생리학적, 과학

28) 디어더 배럿 지음 · 역자이덕남 옮김 『꿈은 알고 있다』 (나무와 숲, 2003.7) p.10

29)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의식의 배경을 이루는 무의식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하여 최초로 탐구한 연구자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지음 · 권오석 옮김, 『고전으로 미래는 읽는다 022-무의식의 분석』 (홍신문화사, 2011.3) p.28

30)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 안병웅 옮김 『꿈의 해석』 (풀빛, 2006. 9) pp.75-101

31) 앞의 책, pp.112-141



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수면에 관한 연구라든지 최면술, 뇌파 측정 등의 연구 결과는 이전보다 한결 꿈의 실체에 다가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sup>32)</sup> 이처럼 꿈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외부의 자극이나 억눌린 욕망이나 감정, 불안, 공포, 기대나 소망 등에 대한 자아의 표출이 꿈으로 표현되는 것이다.<sup>33)</sup>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꿈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바로 자신과 관계되는 일의 표상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꿈은 대체적으로 논리성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변형물들이 뒤죽박죽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기 어려운 초자연적 현상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꿈이기에 바나나는 꿈을 이용하여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는 인물들의 무의식적 감각 등 내적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꿈의 특징으로서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꿈의 예지적 측면이다. 이는 바로 무의식이 의식의 제약을 넘어서서 훨씬 넓고 먼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sup>34)</sup> 우리는 좋은 꿈을 꾸서 복권에 당첨되었다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웬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꿈에서 어떠한 사고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현실에 있을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렇듯 꿈의 예지력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타난다.

융도 꿈에 예지력이 있다고 하였다. “꿈의 주된 기능이 미래의 예견에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믿어졌던 사실이다. 2세기에 달디스의 아르테미도루스가 인용한 옛날의 꿈에 제시된 예견 혹은 예지의 요소를, 나는 현대인들의 꿈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sup>35)</sup>고 했다. 그리고 꿈은 예상하거나 예견하는 성질을 갖는 일도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32) 홍순래 『현실 속의 꿈이야기』 (내일을 여는 책, 1996.6) p.40

33) 앞의 책, p.69

34) 이부영 『분석심리학- 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8.9) p.191

35) 앞의 책, pp.132-133

꿈이 가지는 내면의 심리 표출과 예지는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성격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간절하게 바란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결과가 꿈으로 예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전에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불만 사항, 희망 사항, 자신이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실이나 사건 등 의식과 무의식과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꿈, 또 다른 자아와의 만남의 세계인 꿈 등 무한한 잠재 능력을 보여 주고 있는 꿈을 통해 우리 내면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서 꿈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한 이해와 탐구야말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 2. 꿈과 문학

꿈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기호성과 상징성으로 오랜 시간부터 꿈은 미술과 음악과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깊숙이 개입되어 왔다. 꿈은 특히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신화나 전설, 그리고 고전소설 등에서도 꿈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꿈을 통한 출생, 위기 탈출 등은 고대 소설의 결점이라 할 수 있는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자연스럽게 전개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바나나 작품에서도 이야기의 대단원은 필연적이고 연속적인 사건들의 전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sup>36)</sup> 그리고 이러한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전개가 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바나나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 세계와의 공존을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꿈을 사용하여 비일상적인 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는 바나나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컬트의 도입으로써 일상적 감상과 살아 있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

많은 시조 작품에서는 꿈은 소망의 표현으로 시공을 초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민요, 가사, 서사무가(敍事巫歌)에서도 인생무상의

---

36) 조형준 「하드보일드 모더니티 또는 '교양 속물' 비판 :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을 읽으며」 (『세계의 문학』 제28권, 2003.8) pp.181-182

덧없음, 고달프고 불만족한 현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꿈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sup>37)</sup>

꿈은 현실 생활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정신 활동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남녀, 신분, 연령, 생활수준 등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보편적인 감정의 표현이라는 데서 문학에서 주요한 소재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문학의 여러 작품에서도 꿈은 주요한 작품의 모티브와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황순원과 같은 작가는 인간성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깊이 다루었는데 그 주된 기법이 내면묘사와 내면대화이며 이때 꿈이란 것을 사용했다. 『소나기』, 『독짓는 늙은이』, 『카인의 후예』, 『日月』 등 그의 작품에서 꿈은 소망이나 불안을 반영하고 때로는 예시적인 기능을 하여 작품 속에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38)</sup> 신경숙의 『종소리』에서 꿈은 주인공이 자유를 꿈꾸는 타자(남편)의 내면을 읽어 내려가게 하고, 꿈에 등장하는 새가 화자의 집에 깃든 새라는 점에서 남편이 어디에나 깃들 수 있을 것이라는 삶에 대한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39)</sup> 현대시에서도 시인 기형도, 송찬호, 이갑수 등은 세기말적 꿈의 특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여 꿈과 삶의 관련이 긴밀하게 드러난다.<sup>40)</sup>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고 사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며 삶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내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꿈의 문학적 형상화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꿈의 문학적 형상화는 인간의 심리를 심도 있게 다루는 현대소설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고대소설 속에 나타난 꿈이 예시적인 면을 부각시켜 대개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 전개의 소재로서 작품에 필연성을 강조하였다면, 이에 반해 현대소설에 나타난 꿈은 인물의 내면묘사나 갈등과 고뇌를 깊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소설에 있어서 인물의 성격창조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심리와 의식의 심연(深淵)이나 그 흐름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소설에 나타난 꿈 장면을 분석하여 연구하는 것은 현

37) 홍순래 『현실 속의 꿈이야기』 (내일을 여는 책, 1996.6) p.324

38) 권대근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꿈에 關한 研究 -黃順原의 作品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9.12) p.2

39) 이은형 「요시모토 바나나와 신경숙의 비교연구 - 감각표현과 Occult」 (『일본문학연구』 제28호, 2008.10) p.381

40) 이혜원 『세기말의 꿈과 문학- 이혜원 평론집』 (하늘연못, 1999.11) p.15

대소설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바나나의 작품 속에 나타난 꿈도 고대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예시적인 꿈과 현대소설에서의 소망과 불안 등 심리를 반영하는 꿈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바나나의 작품에서 꿈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작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소설에 나타난 꿈 장면을 분석하고 연구하면 현대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나나 작품에 나타난 꿈을 분석하면 바나나 문학의 특징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백하야선(白河夜船)」에 있어서의 <잠>의 의미

바나나는 현실과 관련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이라는 꿈을 통해서 초현실적인 세계를 작품 전체에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 나타난 꿈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반영하기도 하고 앞으로 전개될 일을 예지하거나 예감하기도 한다. 꿈의 다양한 양상을 바나나 작품 중 「백하야선(白河夜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백하야선」은 1988년 12월 잡지 「海燕」에 발표되었고, 이듬해 7월에 단행본 『白河夜船』(福武書店, 1989.7)으로 출판되었다. 바나나가 단행본 후기에 “폐쇄된 상태,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밤을 그리고 있다”<sup>42)</sup>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의 주제는 ‘잠’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데라코(寺子)에게는 연인 이와나가(岩永)가 있다. 이와나가에게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내가 있다. 그리고 데라코와 친한 친구인 시오리(しおり)는 타인의 곁에서 잠을 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결국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고 만다.

데라코는 친구의 죽음과 부인이 있는 연인과의 불안한 관계 속에서 점차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되고,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반복

41) 권대근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꿈에 關한 研究- 黃順元의 作品을 中心으로」(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9.12) p.1

42) 吉本ばなな 『白河夜船』(福武書店, 1989.7) p.212

한다. 현실과 잠의 세계의 경계가 무너질 만큼 잠에 침식당하던 어느 날, 데라코는 산책하러 나온 공원의 의자에서 꿈을 꾸게 된다. 청바지를 입은 고등학생 정도의 여자 아이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꿈으로 그녀는 데라코에게 어떤 일이든 좋으니 일을 하도록 권한다. 데라코는 꿈속에 나왔던 소녀가 사실은 의식 없는 이와나가의 부인이었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 꿈을 꾸 후, 때마침 친구의 부탁으로 데라코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매일 이어지던 무기력한 생활과 잠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 점차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

‘백하야선’의 의미는 주위의 상황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숙면한다는 뜻이다.<sup>43)</sup> 직역하면 ‘흰 강에 떠있는 밤 배’로 희미하고 몽롱한 이미지이다. ‘백하야선’이 지닌 의미와 이미지는 마치 잠자는 상태와 닮아 있다. 그리고 「백하야선」의 인물들은 모두 잠과 관련되어 있다. 데라코는 깊은 잠에 빠져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시오리는 타인의 곁에서 같이 잠을 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와나가의 아내는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식물인간 상태이다. 이처럼 등장인물 모두 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의 양상을 알아보기 전에 <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3-1. 데라코(寺子)의 잠

#### 3-1-1. 현실도피

수면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여 건강을 회복시키고 체온 조절 및 에너지 보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오랫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신체적으로는 물론 우울증을 가져올 만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지나친 수면 또한 문제가 된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증상을 과다수면증이라고 하며, 과잉된 수면은 정신적·사회적 합병증을 가져온다고 한다.<sup>44)</sup> 이처럼 적당한 잠은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적당한 잠을 넘어서 부족한 수면과 지나친 수면, 즉 수면장애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데라코는 언제부터인가 깨어있는 시간보다

43) 위키피디아 재팬 (<http://ja.wikipedia.org>) (검색일자: 2012.2.1)

44) 주은연·홍승봉 「기면증과 과다수면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J Korean Sleep Soc」 vol.1, 2004.12) p.8

잠을 자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러한 지나친 잠은 테라코의 삶은 무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いつから私はひとりである時、こんなに眠るようになったのだろう。

潮が満ちるように眠りは訪れる。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その眠りは果てしなく深く、電話のベルも、外をゆく車の音も、私の耳には響かない。何もつらくはないし、淋しいわけでもない、そこにはただすとんとした眠りの世界があるだけだ。(中略)

いつから眠りに身をまかせ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いつから抵抗をやめたのだろう……私が潑刺としていつもはっきり目覚めていたのはいつ頃なのだろう。それはあまりにはるかすぎて、太古のこのように思える。シダや恐龍が荒々しく生き生きとした色で目にうつる、遠い昔のこのようにかすんだ畫面としてしか思い出せなかった。

(언제부터 나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잠을 자게 된 것일까. 바닷물이 가득 차듯이 잠은 찾아온다. 이제 어찌할 수도 없다. 그 잠은 한없이 깊어서 전화벨도, 밖을 가는 차 소리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슬프지도 않다. 거기에는 단지 특하고 잠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중략) 언제부터 잠에게 몸을 맡기게 되어 버린 것일까. 언제부터 저항을 그만둔 것일까. 내가 발랄하고 항상 명확하게 깨어 있던 적은 언제쯤일까. 그것은 너무 아득해서, 태고의 일처럼 생각된다. 양치류와 공룡이 거칠고 생생한 색으로 눈에 비치는 먼 옛날의 일처럼 흐릿한 화면으로 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7-8)

위의 예문에서 테라코는 한 번 잠이 들면 외부 자극인 전화벨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白河夜船’의 의미와 같이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는 동안에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모든 감각기관은 여전히 활동한다. 모든 종류의 감각적인 자극은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변화는 이러한 감각기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와 들어오는 감각정보를 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다.<sup>45)</sup> 이와 비슷하게 수면 중에 외부에서 어떤 신체 자극을 주게 되면

45) 폴 마틴 지음·서민아 옮김 『달콤한 잠의 유혹』 (복스켄, 2003.7) p.18

그 자극의 영향으로 꿈을 꾸게 된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잠옷 깃을 너무 죄고 자다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외부에서 감각을 자극하게 되면 그 영향이 꿈에도 미쳐서 꿈의 내용을 결정짓게 되고 결국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sup>46)</sup> 이와 같이 외부에서 감각을 자극하면 꿈을 꾸게 하거나 꿈을 변형시키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의식과 신체는 연결되어 있고,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해도 신체는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극을 가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데라코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극에 대한 무반응은 현재, 그녀가 외적 혹은 내적으로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데라코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자는 과다수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병리학에서는 수면장애가 모두 병적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 불안심리, 긴장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로부터의 회피반응, 우울증, 교대근무 업무의 증가 등 심한 스트레스가 수면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그리고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 강할 때 오히려 잠을 많이 자게 되며, 흔히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불면증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지만, 반대로 과다수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한다.<sup>47)</sup>

데라코가 과잉된 수면을 취하는 원인은 친한 친구의 죽음과 연인과의 불안한 관계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연인의 아내에 대한 죄책감 등 현실에서 오는 복합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찾을 수 있다.

友達が死んだの。あなたは會ったことなかったわね。いちばん仲良しだった女の子、しおりっていうの。(中略) しおりといると、上手く言えないけど、人生の重みがずっしり来る時に、それが半分になるの。氣持が楽になってね、別に何をしてくれるわけでもないのに、いくら氣を許し合ってもべたっとこなくてね、ちょうど良く優しい感じだね。(中略) 思いを伝えようとすればするほど私の言葉は粉になり、前のめりの勢いに乗って風に消えていってしまうのがわかるので口に出さない。(中略) いったい、どう言い表せばこの淋しさ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

46) 홍순래 『현실 속의 꿈이야기』(내일을 여는 책, 1996.6) p.71

47) 블로그 (<http://blog.naver.com/omed22?Redirect=Log&logNo=70123988910>) (2012.4.1)

(친구가 죽었어. 당신은 만난 적 없지. 시오리라고 하는 가장 친한 친구였어. (중략) 뭐라 잘 말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무게가 묵직하게 올 때 시오리랑 있으면 그것이 절반이 되는 거야. 마음이 편해져. 따로 무엇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서로 속을 주면서도 바짝 오지 않아. 적당히 좋고, 서로에게 적당히 친절하고 상냥한 느낌이야. (중략) 생각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말은 가루가 되어, 몸이 앞으로 넘어질 듯 바람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아. (중략)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이 외로움을 전할 수 있는 걸까…….)

(「白河夜船」 『白河夜船』 pp.10-12)

테라코에게 있어 시오리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으며 안식처였다. 그런 시오리의 죽음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준다. 다음은 연인 이와나가와의 관계에 대한 테라코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もしも今、私達のやっていることを本物の戀だと誰かが保証してくれたら、私は安堵のあまりその人の足元にひざまずくだろう。そしてもしもそうでなければ、これが過ぎていってしまうことならば私はずっと今のまま眠りたいので、彼のベルをわからなくしてほしい。私を今すぐひとりにしてほしい。そんな不安に疲れた氣持で、私は彼と出會って1年半日の夏を迎えていた。

(만약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누군가가 보증해 준다면, 나는 너무 안도한 나머지 그 사람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지나 가 버리는 것이라면, 나는 계속 지금 이대로 잠들고 싶기에 그의 벨 소리를 모르길 바란다. 나는 지금 바로 혼자이길 원한다. 그런 불안에 지친 기분으로, 나는 그와 만나고 일 년 반나절의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9-10)

彼らは日夜、人の生死を話し合い、支えあい、私は無言で戀人のように日々を送り、彼女は眠りつづける。

(그들은 밤낮으로 사람의 생사를 이야기 하고 서로 지지한다. 나는 말없이 연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녀는 계속 잠을 잔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38)



이와나가는 유부남이다. 데라코와 이와나가는 연인 사이지만 사회에서 유부남과의 관계는 불륜이고 데라코 자신의 위치는 정부일 뿐이다. 그런 관계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불안하고,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 이와나가와와의 관계에 데라코는 점점 지쳐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불안한 관계라면 오히려 현실보다 아무런 슬픔도 아픔도 없는 잠자는 상태가 되길 원하고 있다. 그리고 데라코는 불안한 연인과의 관계뿐 만 아니라 식물인간인 연인의 아내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 다음의 예문에서 데라코가 연인과의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괴로움의 원인을 이와나가의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神奈川縣の方へ泊まりに行つて、1日中観光して、夕方歸路についた。(中略)東京に戻り、また彼と私がそれぞれの日常へ戻ることが、つらかつた。多分初めて寝たことと、そして何より奥さんのことがずっと心に引っかかっていたせいだろう。

(가나가와현 쪽으로 묵으러 가서 하루종일 관광하고, 저녁귀로에 올랐다. (중략) 도쿄로 돌아가서 다시 그와 내가 각각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괴로웠다. 아마 처음 잤던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탓이겠지.)

(「白河夜船」 『白河夜船』 p.52)

불륜관계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다. 더군다나 상대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를 둔 유부남인 만큼 데라코는 더욱 이와나가의 아내에게 죄책감이 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데라코의 반복적인 잠(과잉수면)은 현실에서의 상실감과 불안감, 죄책감 등 불안한 심리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잠은 현실을 도피하려는 반응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라코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잠을 이용한 것은 어렸을 때 부터였다.

子供の頃から私は、寝つきだけはよかつた。私の「戀人からの電話がわかる」特技の他にもうひとつの美点は「寝ようと思えばすぐ寝られる」だと思う。(中略)私はひとりっ子だったので、そういうわけで夜、たったひとりで家にいることが多かつた。子供ひとりには家は廣すぎて、いつも私はいっせーの一せ、で眠ることにしていた。部屋の電氣を消してから暗い天井を見つめて考える考えごとはあまりにも甘美で、あまりにも

淋しくて、私はいやだった。淋しいことを好きになりたくなかった。だから、あつという間に眠った。

(어릴 때부터 나는 잠이 드는 것만큼은 잘했다. 나의 연인으로부터의 전화를 아는 특기 외에 또 하나의 장점은 ‘자려고 생각하면 바로 잠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중략) 나는 외동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밤에 혼자서 집에 있는 일이 많았다. 아이 혼자에게는 집은 너무 넓어서 항상 나는 ‘잇세노세’놀이로 잠자곤 했었다. 방의 전기를 끄고 나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걱정거리는 너무 감미롭고 너무 외로워서 나는 싫었다. 외로운 것을 좋아하게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순식간에 잤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51-52)

어릴 적부터 데라코가 쓸쓸하고 외롭던 밤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잠이었고, 잠을 잠으로써 혼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잠은 외로움과 고독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어른이 돼서도 잠은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음은 연인과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에 의지하면서 불안함을 잊는 장면이다.

部屋へ戻ってひとりになる瞬間を考えると、恐怖で身がけずられそうだった。続くライトの景色の底に沈んでゆきそうに私は縮こまっていた。どうしてあれほど淋しかったのかわからない。彼はいつも通りに普通に優しくして冗談も言ったし、私も笑った。でも怖れが消えなかった。凍りつきそうだった。しかし、なぜかそうしているうち私はいつの間にか「ことん」と眠ってしまった。本当に、いつ眠ったのか全然、覚えていなかった。しかし、次の瞬間彼に着いたよ、とゆりおこされ、もう自分のマンションの前だと知った時、私は、「うわあ、楽だったー。得したわー。」と思った。私のいちばんいやで悲しいはずの何分間かが、ぽっかり消えていたのだから、眠りは私の味方だわ、と私は來てしまえば何とこのことなのなかった別れ際に笑顔で手を振りながらあらためて感動したのだ。

(방에 돌아와서 혼자가 되는 순간을 생각하면, 공포로 몸이 찢겨나갈 것 같았다. 계속 라이트의 풍경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나는 움츠러들고 있었다. 어째서 그토록 외로웠는지 모른다. 그는 언제나 평소처럼 상냥했고 농담도 하였고, 나도 웃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런데 웬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어느새 ‘뚝’하고 잠들어 버렸다. 정말로 언제 잠들었지 전혀 기억이 없었

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도착 했어”라고 흔들어 깨웠고, 이미 나의 맨션 앞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와, 편했다. 득봤네.’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슬퍼했을 몇 분이 황하니 사라졌으니 잠은 내 편이야,라고 나는 와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질 때에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면서 새삼 감동했던 것이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52-53)

테라코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잠을 택하고 있다. 잠은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테라코가 깨어 있는 시간보다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마음과 정신이 불안하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현실의 도피처로 고통과 불안함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3-1-2. 죽음

바나나는 기분이 우울할 때 어떻게 해소하는가라는 질문에 “여행을 가거나 자면서 쓴다”<sup>48)</sup>고 말한바 있다. 이처럼 잠을 잔다는 행위는 두려움과 슬픔 등 순간의 기분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테라코도 현실의 상처와 슬픔을 잊을 수 있는 장소로 잠을 선택한다. 테라코의 잠은 상처입은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현실의 고통과 불안함을 잊게 만든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이 과잉됨에 따라 잠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私はたとえ眠っていても、それでも戀人の電話だけはわかる。岩永さんからの電話のベルは音がはっきりと違って聞こえる。なぜだか私にはどうしてもわかってしまうのだ。他のもろもろの音が外側から聞こえるのに對して、彼からの電話はまるでヘッドホンをしている時のように頭の内側に快く響く。(中略) その電話だけが私と外界をつないでいるとてつもなく重要なラインに思えた。

(나는 비록 자고 있어도 연인의 전화만은 안다. 이와나가의 전화벨 소리는 분명하고 다르게 들린다. 어째서인지 나는 반드시 알아버리는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소리가

48) Q. 私は今とても落ち込んでいます。気持ちが沈んだ時にはどのようにして切り抜けますか？

A. 旅行に行って頭を切り換えるか、とにかく眠って休むかします。

よしもとばなな 공식 사이트 (<http://www.yoshimotobanana.com>) (2011.12.15)

밖에서 들리는 것에 반해서, 그로부터의 전화는 마치 헤드폰을 하고 있을 때처럼 머리 안쪽에 흔쾌히 울린다. (중략) 그 전화만이 나와 외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선으로 생각되었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8-9)

연인의 전화벨 소리는 깊은 잠에 빠진 데라코를 현실과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로써 데라코가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데라코는 연인의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진다.

歩き疲れた頃には、やたら遠い所にいたので私はバカみたいに結局タクシーに乗って部屋に歸りついた。そして、何ひとつ考えないまっ黒い闇にのまれて、深い眠りについた。スイッチをOFFにしたような眠りだった。この世に、私とベッドしかない……。電話のベルで突然目が覺めた。もう窓からは陽がさしこみ、部屋が明るかった。(中略)私は驚いていた。ついに、信じていた自分の超能力にもガタがきてしまったか……。という思いだった。彼からの電話さえわからなくなるなんて、そんなことはあるはずないと思ひ込んでいたから、本当はとにかく不安で仕方がなかった。

(건다 지쳤을 즈음에는, 쓸데없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바보처럼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무엇 하나 생각하지 않고 검은 어둠에 싸여 깊은 잠에 빠졌다. 스위치를 OFF로 한 것 같은 잠이었다. 이 세상에 나와 침대 밖에 없다……。전화벨에 갑자기 잠이 깼다. 이미 창문으로부터는 햇빛이 들어와 방이 밝았다. (중략) 나는 놀랐다. 결국 믿었던 자신의 초능력에도 이상이 생겨버린 것일까……。라는 생각이었다. 그의 전화조차 알 수 없게 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해서 어쩔 주를 몰랐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49-50)

데라코의 잠의 세계와 현실을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는 이와나가의 전화벨 소리다. 하지만 연인의 전화벨 소리마저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녀가 잠에 빠졌을 때 현실로 돌아올 수단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데라코가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데라코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데라코의 수면은 점점 과잉되고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 의지대로 할 수

없게 된다.

顔を洗っても、歯をみがいても少しも目は覺めず、ただにじむように眠けが心の中にしみ出してくるのを感じた。私はティールームに行ってランチを食べてみたが、衰しいくらい手足は宙に浮き、口と胃と心が全部バラバラだった。窓からうっとり射る薄陽の中、幾度も目を閉じそうになった私は、睡眠時間を逆算してみた。どう考えても10時間以上眠っている。どうして少しも目が覺め始めないのだろう。いつもはいくら寝すぎで眠くても、30分もすればはっきりしてくるのに……と考え込む思考すら、自分のものではないようだった。ふらふらと乗ったタクシーで部屋に歸りついて、洗濯をしながらソファーにもたれていたら、またうとうとした。どうしようもないのだ。(中略)まるで根氣のあるあの人の愛情を示すように、ベルは幾度も鳴り、それでもどうしても目を開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るで呪いのようだ、と私は思った。心ははっきりしているのに、どうしても起きられないのだ。(中略)あまり眠くて、思考が夕闇をさまようように行ったり来たりする。敵は、きっと私だ。薄れゆく意識のなかで、そう確信した。眠りは眞綿のように私をゆっくりしめつけ、私の生氣を吸いとっていった。ブラックアウト。眠りの中で幾度が、彼からの電話のベルの音を聞いた。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도 조금도 잠이 깨지 않았다. 단지 번지듯 잠이 마음속에 묻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티룸에 가서 점심을 먹어보았지만, 슬플 정도로 손발은 공중에 뜨고, 입과 위와 마음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창문으로부터 녀을 잃고 쏘는 열은 햇빛 속에서 몇 번이나 눈을 감게 되는 나는 수면 시간을 역산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10시간이상 자고 있다. 어째서 조금도 깨어나지 않는 것일까. 평소에는 아무리 많이 잠을 자도 30분정도면 또렷해져 오는데……라고 골똘히 생각하는 사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흔들거리며 탄 택시로 집으로 돌아갔다. 빨래를 하면서 소파에 기대 있으면 다시 꾸벅거렸다. 어쩔 수 없다.(중략) 마치 끈기 있는 어떤 사람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벨은 몇 번이나 울리지만 그래도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었다. 마치 저주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마음은 또렷한데 어떻게 해서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중략) 너무 졸려서 사고가 땅거미를 헤매는 것처럼 왔다갔다한다. 적은 분명 나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렇게 확신했다. 잠은 숨처럼 나를 천천히 조이고, 나의 생기를 빨아들었다. 블랙아웃. 잠 속에서 몇 번이나 그의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65-67)

이처럼 테라코의 잠의 상태는 점점 심해져서 사고조차 자신이 것이 아닌 듯 느끼고, 몸조차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현실의 영역을 잠이 침식해 간다. 잠이란 싱싱한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휴양의 의미도 있지만 흔히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갉아먹거나 작은 죽음이라는 인습적인 인식이 있다.<sup>49)</sup> 그 예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잠이 죽음과 같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도 잠을 ‘죽음의 또 다른 일면’이라고 표현하면서 잠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다.<sup>50)</sup> 그런 의미에서 위의 예문과 같이 숨처럼 테라코를 천천히 움아매고, 테라코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잠은 바로 죽음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감지한 테라코는 다음의 예문처럼 자신의 잠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낀다.

しかしそれが人生を侵食するのはどうなのかしら、と最近は目覚める瞬間にふと思う。少しこわい気がした。ついに彼からの電話に気づかず眠りこけていたことだけではなく、いつも私は目覚める度にいったん死んでから生きかえったように思えるくらい深く眠るし、もしかしたら寝ている自分を外から見るとまっ白な骨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時がある。(中略)私は、もしかしたら眠りに憑かれたいるのかもいけない。しおりが仕事に憑かれてしまったように。そう思うと、こわいのだ。

(그것이 인생을 침식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최근에는 일어나는 순간에 문득 생각한다.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든다. 결국 그의 전화를 눈치 채지 못하고 뒹아 떨어졌던 것 뿐만 아니라. 항상 나는 일어날 때마다 죽고 살아난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잠 들고, 혹시 자고 있는 자신을 밖에서 보면 새하얀 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중략) 나는 어쩌면 잠에 홀린 것일지도 모른다. 시오리가 일에 홀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무섭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53)

私は心底、こわかった。いったい、時計は幾回りしたのか。今は、何月何日なのか。(中略)しかし、それにしても尋常ではない時間を眠り続けたのは確かだった。体中が少し調子を狂わせているのがわかる。(中略)私は、部屋へ戻るのが本当にこわくて仕方がなかった。きっとまた、眠ってしまっ—いっそ、やけくそになって眠ってしまおう

49) 김용안 「요시모토 바나나의 『죽음보다 깊은 잠(白河夜船)』 문 - <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34호 2009.5) p.65

50) 로버트 폴런드 스미스 지음 · 남경태 옮김 『소크라테스와 아침을』 ( 마젤란, 2010.4) p.20

かとも思った。

(나는 진심으로 무서웠다. 도대체 시계는 몇 번 돌았을까. 지금은 몇 월 며칠일까. (중략)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심상치 않은 시간을 계속 잔 것은 확실했다.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안다. (중략) 나는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반드시 또 잠들어 버린다. 차라리 포기하고 자 버릴까 하고도 생각했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68-69)

테라코는 이미 시오리의 죽음을 경험하였다. 시오리가 일에 홀린 것처럼 테라코 자신도 잠에 홀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잠이 인생을 침식하여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까봐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테라코의 과잉되는 잠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식물인간이 되어 의식 없이 계속 잠들어 있는 이와나가의 아내의 잠과도 연결된다.

### 3-2. 이와나가(岩永)의 아내의 잠- 죽음

다음은 이와나가의 아내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예문들이다.

もう意識がない、眠ったまま病院でひっそり生きている妻だった。

(이미 의식이 없이, 잠든 채 병원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아내였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31)

「岩永さんの奥さんはどんな人ですか？」彼は苦笑して言った。「植物人間なんだ。」

(“이와나가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예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식물인간이야.”)

(「白河夜船」 『白河夜船』 p.32)

うん、俺は本当に女の人には恵まれてると思う。寺子もいいけど、あの人もいい女だった。……もう、この世にいないけどな、もう。

(응, 나는 정말로 여자 운이 좋다고 생각해. 테라코도 좋지만, 부인도 좋은 여자였어.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미.)

(「白河夜船」 『白河夜船』 p.56)

위의 예문처럼 이와나가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의식 없이 병원에서 잠든 채 조용히 숨만 쉬는 식물인간 상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잠을 죽음의 또 다른 일면으로 봤을 때, 영원한 잠을 자는 식물인간은 죽은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나가가 자신의 아내를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아내는 끝내 죽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세이카이 켄(青海健)도 「틀에 박힌 형식과 죽음과(絞切り型と死と-吉本ばなな論のために)」(「群像」1990.11)에서 “테라코의 연인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서 오로지 계속 잠들어 있는 것도, 그리고 테라코가 회사를 그만두고 잠만 자고 있는 것도, ‘수면’과 ‘죽음’과의 근친성을 말하고 있다.”<sup>51)</sup>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와나가의 아내의 식물인간 상태, 즉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나친 잠은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테라코는 잠으로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많아지고, 깊어진다. 즉, 점점 깊어지고, 과잉된 잠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3-3. 시오리(しおり)의 잠- 치유

테라코의 친한 친구인 시오리가 하는 일은 단지 타인의 곁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私はね、ひと晩中、眠るわけにいかないの。だって、もし夜中にとり代りの人が目を覚めました時、私がぐうぐう眠っていたら、私の仕事にはあんまり価値がないってうか、プロじゃないのよ、わかる？決して淋しくさせてはいけないの。私のところへやって来る人は、もちろん人づての人ばかりだけれど、みんな身分はきちんとした人ばかりよ。ものすごくデリケートな形で傷ついて、疲れ果てている人ばかりなの。自分が疲れちゃっていることすらわからないくらいにね。それで、必ずと言っていいほど、夜中に目を覚ますのよ。そういう時に、淡い明かりの中で私がにっこり微笑んであげることが大切なの。そして、氷水をいっぱい、手渡してあげるのね。(中略) そうするとたいがい安心して、またぐっすり眠るものなのね、人は。人はみんな、誰かにただとりに眠ってほしいものなんだなあって思う。

51) "寺子の恋人の妻が交通事故で植物人間になってひたすら眠り続けるのも、そして寺子が会社をやめて寝てばかりしているのも、「眠り」と「死」との近親性を語るだけである。"  
세이카이 켄(青海健) 「絞切り型と死と-吉本ばなな論のために」(「群像」1990.11) p.266



(나는 말야. 하룻밤 내내 잘 수 없어. 왜냐하면 만약 한밤중에 옆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내가 쿵쿵 자고 있으면 나의 일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할까, 프로가 아니야. 이해하겠어? 결코 외롭게 하면 안 돼. 내게 오는 사람은 물론 소문을 통해 오는 사람뿐이지만, 모두 신분은 버젓한 사람들이야. 아주 섬세한 형태로 상처 입고 완전히 지쳐 버린 사람들이야. 자신이 지쳐 있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한밤중에 눈을 떠. 그럴 때, 희미한 빛 속에서 내가 생긋 미소 지어 주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얼음물을 가득 전해 주는 거야. (중략) 그러면 대부분 안심하고 다시 푹 잠들어. 사람은 모두 누군가의 옆에서 단지 잠들기를 바라는 존재라고 생각해.)

(「白河夜船」 『白河夜船』 pp.27-28)

자신이 지쳐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시오리는 현실에 지친 사람들의 잠자리 곁을 지켜준다. 그리고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의 삶의 피로를 어루만져 준다. 시오리는 그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고 다시 편안한 잠으로 인도해주는 치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서 자주는 것 말고도 타인의 꿈을 공유하고 흡수한다.

けっこういいかげんだから、寝ちゃう時もあるけどね。……そうそう、そういう疲れた人のとなりに眠っているとね、その寝息に息を合わせてゆくとね、その人の心の暗闇を吸いとってしまうのかもしれない。寝っちゃだめ、と思いながら、うとうとと恐ろしい夢を見ることがあるのよ。シュールなの。沈んでゆく船に乗り込んでいる夢、集めていたコインを失くしてしまう夢、闇が窓から入ってきて、のどをふさがれてしまう夢……どきっとして、ぎょっとして、目を覚めるの。何だか、こわい。まだ眠っているとなりの人を見る時、ああ、今、この人の心の風景を見たんだわ。それはあんなに淋しくてつらい、荒れた眺めなんだわ、と思う時ね……なんか、こわいの。

(적당히 자버릴 때도 있지만 말이야. 그래그래, 그렇게 지친 사람 옆에 자고 있으면 말야, 그 숨소리에 호흡을 맞추어 가면 그 사람의 마음의 어두운 곳을 흡수해버리는 것인지도 몰라.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꾸벅꾸벅 무서운 꿈을 꾸는 일이 있어. 무엇인가 초월한, 가라앉는 배에 탑승하고 있는 꿈, 모으고 있던 코인을 잃어버리는

꿈, 어둠이 창으로부터 들어와서 목구멍이 막히는 꿈. 철렁하고 흠칫하며 깨어나. 웬지 무서워. 아직 자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아,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풍경을 봤구나. 그건 그렇게 외롭고 괴롭고 거칠어진 정치구나라고 생각할 때, 웬지 무서워.)

(「白河夜船」 『白河夜船』 p.28)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꿈, 동전을 잃어버리는 꿈, 숨이 막히는 꿈 모두 무섭고 불안하게 만드는 악몽이며, 이 악몽은 자는 사람의 마음속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꿈은 정신 활동으로 꿈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며,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정신적인 행위다. 또한 꿈은 정신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며 정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 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sup>52)</sup>라고 밝히고 있듯, 꿈은 현재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오리는 옆에서 자는 사람들의 외롭고 괴롭고 황량한 마음을 공유하고 빨아들임으로써 그들을 치유해 주고 있는 있다. 김용안도 「요시모토 바나나의 『죽음보다 깊은 잠(白河夜船)』 론 - <잠>을 중심으로」(2009.5)에서 잠을 자는 사람 옆에서 함께 곁잠을 자주면, 곁잠을 자주는 사람이 피곤에 지치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의 혼돈이나 어둠을 모조리 빨아 내줄 수 있고, 이는 곁잠을 통한 치유<sup>53)</sup>라고 보았다. 즉, 시오리는 상처를 입고 지친 사람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꿈(악몽)으로 나타나는 마음속의 풍경을 공유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흡수함으로써 치유를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시오리는 악몽이 더해져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시오리의 잠은 자신의 희생을 통한 타인을 구원하는 치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52)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 안병웅 옮김 『꿈의 해석』 (폴빛, 2006. 9) p.61

53) 김용안 「요시모토 바나나의 『죽음보다 깊은 잠(白河夜船)』 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34호, 2009.5) p.72

## 4. 요시모토 바나나 작품에 있어서의 <꿈>의 양상

### 4-1. 무의식 반영

꿈은 인간의 심리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사람의 심리적 활동으로 정의하며 꿈이 마음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았다.<sup>54)</sup> 이처럼 꿈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소망이나 불안, 공포, 초조, 억압 등 잠재 의식 속에 파묻혀 있던 일상의 생각들이 꿈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바나나는 현대소설에서 나타나는 소망과 불안 등 심리를 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 4-1-1. 소망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늘 죽은 사람의 빈자리를 끼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재를 남긴다. 그 부재가 버겁고 힘겨울 때 우리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나마 그리운 이를 만나서 그 부재를 부정하고, 부재의 무게를 덜고 싶어 한다. 그리고 꿈속에서의 만남에서 삶의 힘을 얻고자 한다. 「백하야선」의 테라코는 죽은 시오리가 나오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いつものように一擧に眠りになだれこむ直前にそんなことを考えたせいだろう、私は、しおりが死んでからはじめて、はっきりとしたしおりの夢を見た。まるで目の前にある現実のように生き々しい、リアルな夢だった。私は、私の部屋ではっと目覚める。それは夜で、部屋の向うに續くダイニングキッチンにある丸いきのテーブルに、しおりが花を活けている姿が見える。見なれたピンクのセーターと、カーキ色のパンツ、いつもはいていたスリッパをはいている。私はぼんやりと起き上がって、「しおりー？」と寝ぼけ聲で言う。「目、覺めたの？」としおりはこっちを見て、今までの眞剣な横顔から柔らかな笑顔になる。ほほにえくぼができる。私も、つられてうふふと笑い、「あのねえ、今、岩永さんの夢見てたのよ。」私は言う。「すごくりアルな夢、いっしょに寝る

54)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 안병웅 옮김 『꿈의 해석』 ( 풀빛, 2006.9) pp.21-22

の。並んでベッドにいてね、しおりの話をしてる夢だったわ。」(中略)しおりは、テーブルの上のガラスの花びんに、たくさんの白いチューリップを活けようとしている。(中略)しおりは私の寝ていた方の部屋へ走り、いすを抱えて戻ってくる。何だか得意げな笑顔をしているので、思わず私は言う。「しおりはいつも笑っているのね。」

(中略)いすから降りたしおりがにっこり笑い、私はうなずく。しおりの方が花を活けるのは上手だから、私はしおりに香りの良い白いチューリップを1本ずつ渡す。しおりはいてねいに、きけていく……。はっと目が覺めた。(中略)あまりにも生き々しかった。今いた場所ではない場所に私は突然降りってきて、となりには男が寝ていた。

(中略)しばらくあたりを見つめながら、急速に現實にバックしていった。あまりにも夢の力が強かったので、頭がががんと、目の前の何もかもがうそに思えた。久しぶりにしおりに會えたという感触だけが確にあった。

(늘 그렇듯, 단번에 잠이 밀려들기 직전에 그런 것을 생각한 탓일까. 나는 시오리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뚜렷한 시오리의 꿈을 꾸었다. 마치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생생하고 사실적인 꿈이었다. 나는 내 방에서 번쩍 눈을 뜬다. 그것은 밤이고, 방 저편에 이어진 주방의 원형 테이블에 시오리가 꽃꽂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낮익은 핑크 스웨터와 카키색 바지 항상 입고 있던 슬리퍼를 신고 있다. 나는 갑자기 부스스 일어나 “시오리?”하고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한다. “일어났어?”라고 시오리는 이쪽을 보며 지금까지의 진지한 옆얼굴이 부드러운 웃는 얼굴이 된다. 볼에 보조개가 있다. 나도 덩달아 후후 웃는다. “있지. 지금 이어나가의 꿈을 꾸었어.” 나는 말한다. “너무 리얼한 꿈이야. 나란히 침대에 있었어. 시오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꿈이었어.”(중략) 시오리는 테이블 위의 유리 화병에 많고 하얀 튜립을 꽂으려고 하고 있다.(중략) 시오리는 내가 자고 있던 방으로 달려가 의자를 가지고 돌아온다. 웬지 자랑스럽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심코 나는 말한다. “시오리는 언제나 웃고 있네.”(중략) 의자에서 내려온 시오리가 싱긋 웃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시오리가 꽃꽂이를 잘하니깐 나는 시오리에게 향기로운 흰 튜립을 하나씩 전한다. 시오리는 정성스럽게 꽂는다. 번쩍 눈을 떴다.(중략) 너무나 생생했다. 지금 있던 장소가 아닌 곳으로 나는 갑자기 떨어졌고, 옆에는 남자가 자고 있었다.(중략) 잠시 주위를 바라보면서 빠르게 현실로 돌아왔다. 너무나도 꿈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머리가 멍하고 눈앞의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오랜만에 시오리와 만났다는 감촉만이 확실했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57-61)

꿈속에서 시오리와의 대화는 일상의 반복인 것처럼 그려진다. 죽은 시오리와의 만남은 마치 현실과도 같이 생생하고 리얼했지만 오히려 이와나가와의 관계가 꿈같은 비현실로 느껴진다. 너무나 생생한 꿈. 그 꿈의 힘은 너무도 강렬해서 오히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꿈인지 현실인지 혼몽한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꿈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체험의 생생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꿈은 현실과 비현실적인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죽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불러들인다.

한편, 이 꿈에서 중요한 것은 데라코의 꿈속의 풍경이다. 꿈에서 시오리는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다. 꿈에서 떠오른 사고가 과거든 현재든 언젠가 경험한 감각적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부른다.<sup>55)</sup> 프로이트가 “퇴행은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 작용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친숙한 것으로 퇴행한다.”<sup>56)</sup> 고 밝힌 것처럼 꿈은 익숙한 것으로 퇴행하고 익숙한 것을 택할 때의 편안함을 시오리의 낯익은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방 공기는 신선하고, 물병을 씻는 소리에서조차 기운차게 울리며, 꽃의 향긋함에서 데라코의 꿈이 대체로 긍정적이고 밝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최근 꿈속의 풍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론이 발표됐다. 이것에 따르면, “꿈속의 풍경이 중요한 이유는 풍경이 꿈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꿈속의 풍경은 그 꿈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기분을 좌우하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자기 삶의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를 말해 준다.”<sup>57)</sup>고 한다. 이처럼 데라코는 시오리와의 일상에서 항상 웃을 수 있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꼈다.

わかった。どういふことかやっと本當にわかつた氣がした。添い寢は、今の私こそがしてもらふべきことだつた。今の私のような人。もし、しおりが私の横に眠つていたら、今のような強力で熱い夢を見てしまつたに違ひない。見ているものを魅きつける、もうひとつの現實、リアルな色や視點、肌合ひ……私は何だか愕然としたままでベッドカバー

55)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 안병웅 옮김 『꿈의 해석』 ( 풀빛, 2006. 9) p.254

56) 앞의 책, pp.258-263

57) 매브 에니스 제니퍼 파커 지음 · 장석훈 옮김 『꿈을 잡아라!』 ( 궁리출판, 2003.1) p.156

を見つめていた。

(알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옆에서 같이 잠을 자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은 만약에 시오리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강력하고 뜨거운 꿈을 꾸었음에 틀림없다. 꿈꾸는 자를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현실, 리얼한 색채와 시점, 감촉……. 나는 뭔가 어리둥절한 채 침대 커버를 바라보고 있었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62)

시오리의 일은 자신이 지쳐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잠자리를 단지 곁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며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생긋 웃어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시오리는 그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고 다시 편안한 잠으로 인도해주는 치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이란 다들 누가 옆에서 그냥 자주기를 바라고 그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약한 존재인 것처럼 데라코도 상처입고 지쳐있는 자신의 상태를 위로받고 싶은 소망이 시오리를 불러들인 것이다. 즉, 꿈은 죽은 시오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현실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소망이 동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꿈을 통해 의식으로 나타난다.

『백야선』에 수록된 바나나의 다른 작품인 「밤과 밤의 나그네(夜と夜の旅人)」(福武書店, 1989.7)에서도 무의식적인 소망이 꿈으로 나타난다. 시바미(芝美)의 죽은 오빠 요시히로(芳裕)와 사촌언니 마리에(毬繪)는 연인사이였지만 요시히로가 교통사고로 죽은 후 마리에에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괴로운 마음으로 바깥세상에 대한 모든 반응을 정시키고, 꿈과 현실 사이를 헤매고 있다. 이런 마리에가 죽은 요시히로를 만나고 싶은 소망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本当に何ヵ月かぶりに見たのよ。芳裕の夢なんか。あの、黒いジャケットを着た後姿の夢を。私が道を歩いていると、前方に、人ごみにまぎれて、見たことをある後姿があった。それで、誰だろう、誰だっけ、と思ってとりあえず見てみようとして追ってみるの。近づくとつれて、胸が悪くなるほどぎまぎしてきて、すごく動揺する。すごく愛しい後姿なの。何だかわからないんだけど、愛しい気がするの。飛びついて、抱きしめてぐちゃぐちゃにしたいくらいに。肩に手をかけようとした時、私は急にその名を思い出し

た。「芳裕！」っていう自分の聲で目が覺めた。居間のソファーで寝てただけど、母親が「呼んだ？」って奥の部屋から歩いてきたほどの聲よ。「こわい夢を見ちゃって」って言ったけど、確かに、こわいよね。

(정말로 몇 개월 만에 봤어. 요시히로의 꿈. 검은 재킷을 입은 뒷모습의 꿈을.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전방의 인파에 섞여서 본 적이 있는 뒷모습이었어. 그래서 누굴까, 누구였지 하고 생각하고 일단 보려고 뒤쫓아 가 봤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아플 정도로 두근거리고, 몹시 동요했어. 너무 사랑스러운 뒷모습이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어. 달려들어서 끌어안고 엉망진창이고 싶을 정도로. 어깨에 손을 걸려고 했을 때, 나는 갑자기 그 이름을 떠올렸어. “요시히로!”라고 자신의 목소리에 잠을 깬어.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불렀어?”하며 안방에서 걸어 나올 정도의 목소리였어. 무서운 꿈을 꿨다고 말했지만, 확실히 무섭네.)

(「夜と夜の旅人」 『白河夜船』 pp.111-112)

위의 예문에서 마리에에는 꿈속에서 자신이 본 사람이 직감적으로 요시히로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쫓아 가는 동안 두근거렸고, 동요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현실에는 요시히로가 없다는 사실은 마리를 무섭게 한다. 프로이트의 ‘꿈은 억눌린 소망의 표현’이라는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바람과 심정이 꿈에 의탁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꿈으로나마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들을 체험케 함으로써 자아 만족을 얻게 한다.

시바미가 마리에의 잦은 밤거리의 배회를 ‘몽유병’같은 방황<sup>58)</sup>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의식의 소망분출과 관련 있다. 홍순래는 몽유병에 대해서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꿈으로 형상화하여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몽유병<sup>59)</sup>이라고 말한다. 몽유병을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꿈으로 본다고 할 때 몽유병은 현실에서 억제되었던 욕구를 꿈속에서 해소하려는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실에서 이루고자 했던 억압된 마음을 시연(試演)해 봄으로써 대리 만족을 얻게 한다.

58) 吉本ばなな 「白河夜船」(福武書店, 1989.7) p.124

59) 홍순래 『현실 속의 꿈이야기』(내일을 여는 책, 1996.6) pp.34-35

#### 4-1-2. 불안

바나나의 다른 작품인 『암리타(アムリタ)』(福武書店, 1994.1)에서는 고즈미(コズミ)의 가족들이 한 명 씩 죽으면서 고즈미의 상처와 불안감이 꿈으로 표출되고 있다.

はじめに海の事故で父が死んだ。バイクの事故で弟がひとり死んだ。……勤め先で感電事故があり、姉が死んだ。しばらくして兄が病気で死んだ。2年前、留學先で弟がエイズにかかって死んだ。今は母と僕だけだ。それ以来、そういう予言の聲は聞こえてこないけれど、よく夢は見るんだ。みんなで寝ている子供時代の夢。寢息が響いて、いびきも、齒ざしりも。でもみんなすうすうと寝ている。子供のときの寝顔で。僕はその寝顔を見て、今はにんなここにいるけれど、みんな死んでしまうんじゃあ、って、夢の中で思う。ひとりで残るんじゃあ、って。目が覺めると泣きたくなる。

(처음 바다에서 사고로 아버지가 죽었다. 바이크 사고로 남동생이 한 명 죽었다. …… 일하던 곳에서 감전 사고가 있었고 여동생이 죽었다. 곧 형이 병으로 죽었다. 2년 전, 유학하던 남동생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다. 지금은 나와 어머니뿐이다. 그 이후, 그러한 예언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자주 꿈을 꾸다. 모두 잠들어 있는 어린 시절의 꿈. 숨소리가 울리고, 코골이도, 이가는 것도. 그래도 모두 새근새근 자고 있다. 어렸을 때의 잠든 얼굴로. 나는 그 잠든 얼굴을 보며, 지금은 모두 이곳에 있지만, 모두 죽어버리면, 하고 꿈속에서 생각한다. 혼자 남잖아. 잠에서 깨면 울고 싶어진다.)

(『アムリタ上』 p.274)

고즈미는 어머니를 빼고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잃었다. 오랜 시간 더불어 살았던 애뜻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각일 것이다. 떠남으로 생긴 자리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고 그 자리에는 상처와 슬픔만이 남는다. 꿈속에서는 죽었던 가족들이 살아있고, 어릴 시절의 평화로웠던 모습처럼 모두가 잠을 자고 있다. 모두가 살아 있기에 행복해야 하지만 오히려 모두 다시 죽을까 봐 불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혼자 남겨질 것에 두려워하고 슬퍼한다. 꿈에서 모두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면서 느꼈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꿈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바나나의 데뷔작 『키친』에 수록된 「달빛그림자(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



(福武書店, 1988.1)에서 사츠키(さつき)는 연인 히토시(等)가 죽은 후, 항상 히토시와 관련된 꿈을 꾸다.

私はいつも等に關係のある夢を見た。苦しくて浅い眠りの中で、等に會えたり會えなかつたりしながら、いつもこれは夢で本当のところはもう2度と會えはしないことを知っていた。だから、眠りの中でも目をさますまいと努力した。(中略)カーテンの向うが明るくなり、青白い、しんと息づいた時間の中に私は放り出される。こんなことなら夢の中にいればよかったと思うくらい淋しく寒い。もう決して眠れずに夢の余韻に苦しむひとりきりの夜明けだ。

(나는 항상 히토시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 괴롭고 얇은 잠 속에서 히토시를 만날 수 있기도 하고 만날 수 없기도 하면서, 언제나 이것은 꿈이고 사실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잠 속에서도 눈을 뜨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중략) 커튼 너머, 밝아진다. 창백하다. 한 숨 쉬는 시간 속에 나는 내던져진다. 이런 것이라면 꿈속에 있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외롭고 춥다. 결코 잠자지 못하고 꿈의 여운에 괴로워하는 혼자만의 새벽이다.)

(「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 『キッチン』 pp.170-171)

사츠키는 연인 히토시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쉽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비일상적인 생활을 한다.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사츠키는 히토시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다.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꿈으로 연결된다. 꿈을 통해서 사츠키는 죽은 히토시를 만나고 그녀의 소망을 이룬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히토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꿈은 자신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주는 동시에 현실을 더 잘 알게 하기도 한다.

#### 4-2. 꿈을 통한 소통

꿈은 죽은 사람과 산사람의 매개체로서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때론 예언적인 꿈을 통해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암시하면서 하나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은 초현실적인 꿈이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꿈은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가교역할을 한다. 바나나가 『바나나의 바나나(ばなのばなな)』(メタローグ, 1994.1)에서 “나 또한 비물질적 세계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지요.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나의 인생을 보거나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게 자유자재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나는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꿈의 차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sup>60)</sup> 라고 밝히고 있듯이 그녀는 꿈의 세계를 통해서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꿈은 죽은 자와도 소통할 수 있는 회로이며 꿈은 그저 꿈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과 조우하는 장치<sup>61)</sup>로서 이용된다. 이처럼 꿈이 현실과 비현실적인 세계를 만들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음은 꿈속에서 죽은 사람 또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예감하거나 예지하는 꿈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 4-2-1. 예지(豫知)

바나나 대부분의 작품에 나타나는 오컬트적 표현은 일상과 전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으로 그려져 있다. 보통 오컬트라고 하면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 또는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나나는 오컬트를 초능력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그리고 꿈이라는 일상적인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예지몽 등 초능력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 바나나는 “실제 체험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테마로서 이 세상의 모든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sup>62)</sup>라고 밝히고 있듯이 바나나 작품에 있어서 오컬트는 중요한 모티브다. 그리고 오컬트의 한 부분인 예지를 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60) 吉本ばなな 『ばなのばなな』(メタローグ, 1994.1) p.34

61) 김용안 「요시모토 바나나의 『죽음보다 깊은 잠(白河夜船)』론 - <잠>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34호 2009.5) p.69

62) Q. 作品の中に「予知夢」などの超能力が出てくるのは何故ですか？ また、自分でもそのような実体験があるのでしょうか？

A. 実体験はないですが、まわりにそういう能力のある人がたくさんいて、自分にとっては自然な感じですね。テーマとしてこの世の神秘全般を扱っているのでも、どうしてもしょっちゅう描いてしまいます。

よしもとばなな 공식 사이트 (<http://www.yoshimotobanana.com>) (2011.12.15)

「밤과 밤의 나그네」에서 마리에는 시바미가 죽은 요시히로를 만나는 꿈을 꾸다.

その時、毬繪がびくっと跳ね起きた。そして眉をしかめて私を見つめた。彼女はまるで痴呆のような瞳をしていた。(中略)「ちょっと。」毬繪はそう言うと、さっきあの子に触れた私の手に触った。そして、ぼかんとした顔で私を見上げた。「芳裕に會った?」

(中略)私はぞうっとして、まるで振り拂うようにしてその手をのけた。そして、乾いた聲で、「ううん。」という、おかしいな答えをやっと言った。(中略)「ただ、夢を見た。今。その中で、ちょうど芝美が芳裕と會って話をしている場面を見てたの。何か……明るいところ、ロビーみたいところで。」私は何も言えず、ただ、「そう。」と言ったとたん、心にゆっくりと何かがにじんでゆくのが、わかった。

(그 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눈썹을 찡그리고 나를 응시했다. 그녀는 마치 치매와 같은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중략) “조금”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며 조금 전 그 아이에게 접한 나의 손을 만졌다. 그리고 딱 한 얼굴로 나를 올려보았다. “요시히로를 만났어?” (중략) 나는 소름이 끼쳐 그 손을 뿌리치듯 그 손을 놓았다. 그리고 건조한 소리로 “으응.”이라고 이상한 대답을 겨우 말했다. (중략) “단지, 꿈을 꾸었어. 지금. 그 안에서 확실히 시바미가 요시히로와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 뭔가 밝은 곳, 로비같은 곳에서.”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단지,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에 천천히 무엇인가가 번져가는 것을 알았다.)

(「夜と夜の旅人」 『白河夜船』 pp.152-154)

사실 시바미가 만났던 것은 요시히로가 아니라 요시히로의 아들이다. 하지만 죽은 요시히로를 꼭 빼닮은 아들이 그를 대신한다고 했을 때, 마리에는 예지적인 꿈을 통해 살아있는 요시히로를 발견한다. 요시히로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유일한 아이는 그를 대신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은 그 아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요시히로를 만나고, 그를 잃은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해 나갈 것이다.

#### 4-2-2. 치유

고대 그리스에서 성행하던 아스클레피우스 사원에서의 수면은 꿈의 치료적인 역할을 보여 준 좋은 예로서 현대의 정신 치료와 비슷한 기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병자들 의신(醫神) 아스클레피우스를 모신 사원에 가서 목욕재계하고 아바톤이라는 신성한 건물에 들어가 잠들며 꿈에 의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여러 모습으로 신이 나타나거나 신의 처방을 따를 때 병이 치유된다고 생각하였다.<sup>63)</sup> 프로이트도 꿈은 바라는 소망을 충족시켜 낮의 근심과 고통을 없애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 한다<sup>64)</sup>고 보았고, 융 또한 꿈이 미묘한 방법으로 마음 전체의 평형성을 이루게 하는 재료를 산출함으로써 심리적인 평형을 회복시킨다고 하였다.<sup>65)</sup> 이처럼 꿈은 오래전부터 치료로서의 기능을 해 왔다. 꿈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바나나가 추구하는 ‘치유’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꿈은 살아가는데 있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죽은 자’, 즉 현실세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자가 환영으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고 위로하기도 하는데<sup>66)</sup> 「백야선」에서는 식물인간인 이와나가의 부인이 테라코의 꿈에 나타나 그녀를 위로해 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

霧が出ていた。砂場にある色とりどりの動物の置物が煙って見えた。しめった縁の匂が、土の香りが、公園の中に満ちていた。私は頭を抱えたままで閉じそうなまぶたと戦いながら、暗く映る自分のスカートの柄を見ていた。「どこか具合いでもお悪いんですか?」 耳元で女の聲がした。(中略) Gパンをはいた高校生くらいの女の子だった。(中略) 彼女は何か、まわりにそぐわない違和感のようなおかしい雰囲気があった。長い髪をさらさら肩におろした、とても美しい女の子だった。(中略) 「今すぐ、驛に行きなさい。」(中略) 「そして、アルバイトニュースを買うの。その中から、ごく短期でいい、アルバイトを見つけなさい。マネキンでも、ショーのコンパニオンでもいいわ。事務はだめ、眠ってしまうから。とにかく立って、手や足を動かす仕事を。そうしなさい。見てもらえないわ。そのまま行くと、あなたがとり返しのかないことになってしまいそうで、こわいのよ。」(中略) 「きっと、もう、お会いすることもないでしょう。あなたは今、私にとっても近いところにいるから、會えてしまったのかもしれないの。」彼女は言った。「別に、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だけをすすめてるんじゃないの。」

63) 이부영 『분석심리학- C.G.Jung의 인간심성론』(일조각,2008.9) p.185

64)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 안병웅 옮김 『꿈의 해석』( 풀빛, 2006. 9) pp.264-231

65)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지음 · 권오석 옮김 『고전으로 미래는 읽는다 022-무의식의 분석』(홍신문화사, 2011.3) p.74

66) 이은형 「요시모토 바나나와 신경숙의 비교연구 -감각표현과 Occult-」(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제28집, 2008.10) p.370

の。そんなことじゃなくって心が、疲れきってしまっているのよ。そういう人は、あなただけじゃなくって、たくさんいるわ。でも、あなただけが、私のおかげで疲れているような気がして……そんな風に見えて……、ごめんなさい。ごめんね、 私が誰だか、あなたわかるでしょう?」まっすぐ私の目を見たままで、呪文のように問いかけた。「あなたは……。」と口に出した自分の聲の響きが妙に大きくて、はっと目を開いた。目の前には誰もおらず、ただ公園の包み、視界をぼやけさせる冷たい霧が漂っていた。(안개가 껴 있었다. 모래밭에 있는形形色색의 동물 조각들이 자욱해 보였다. 축축한 가장자리 냄새, 흙의 향기가 공원 안에 채워졌다. 나는 머리를 감싼 채 단힐 것 같은 눈꺼풀과 싸우면서 어둡게 비치는 자신의 치마 무늬를 보고 있었다. “어딘가 몸이 아프세요?” 귓가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중략) 청바지를 입은 고등 학생 정도의 여자였다. (중략) 그녀는 뭔가 주위에 맞지 않는 위화감 같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다. 긴 머리를 찰랑찰랑 어깨에 내린 무척 아름다운 소녀였다. (중략) “지금 바로, 역으로 가세요.” (중략) “그리고 아르바이트 정보지를 사요. 그 중에서 극히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요. 마네킹이든, 쇼 도우미라도 좋아. 사무일은 안 돼.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일어서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일을. 그렇게 하세요. 볼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면, 당신이 돌이킬 수 없게 되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 (중략)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만났는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달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을 권하는 것은 아니예요. 마음이 지쳐 버린거야. 그런 사람은 당신뿐만이 만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만이 나 때문에 지쳐있는 듯 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여서.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누구인지 당신 알죠?” 똑바로 내 눈을 보며 주문처럼 물었다. “당신은…….”하고 입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의 울림이 묘하게 커서, 깜작 놀라 눈을 떴다. 눈앞에는 아무도 없고, 단지 공원을 감싸고 시야를 흐릿하게 해주는 차가운 안개가 감돌고 있었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70-74)

쏟아지는 잠을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어찌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데라코의 꿈에 이와나가의 아내가 소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데라코에게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데라코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면서 상처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데라코에게 사과한다. 만약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데라코가 이와나가의 아내에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와나가의 아내는 오히려 자신 때문에 힘들어 하는 데라코를 걱정하고 위로해준다. 이 꿈을 통해서 데라

코는 이와나가의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으면서 서서히 치유된다. 그리고 데라코가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버팀목 역할을 한다.

연인 이와나가를 만나는 일 이외에는 삶의 의미가 없고, 친구 시오리의 죽음이후 더욱 무기력해지고 점점 더 잠에 빠져드는 데라코에게 있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신체감각을 각성시키고 죽음과 같은 잠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즉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와나가의 아내는 데라코가 과잉된 잠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죽음)로 가기 전에 일을 권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음의 예문들은 데라코가 일을 시작한 후의 변화된 모습이다.

永遠のような1週間は、何とか過ぎていった。(中略)頭は冴えて、体はくたくただった。もし一晝夜眠り込んでも、今度はこわくない。

(영원과 같은 일주일은 그럭저럭 지나갔다. (중략) 머리는 맑았고 몸은 기진맥진이었다. 만약 하루 종일 깊이 잠들어도 이번은 무섭지 않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p.83-84)

일을 시작한 데라코는 몸은 기진맥진 했지만 머리만큼은 오히려 맑게 느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조차 무서웠던 데라코는 하루 종일 깊이 잠든다 해도 무서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데라코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私の内にはいつの間にか健やかな気持ちがよみがえってきているように思う。それは、友達を亡くし、日常に疲れてしまった私の心が体験した小さな波、小さな蘇生の物語にすぎなくても、やっぱり人は丈夫なものだと思う。こんなことが昔もあったかどうか忘れてしまったが、ひとり自分の中にある闇と向き合ったら、深いところでぼろぼろに傷ついて疲れはててしまったら、ふいにわけのわからない強さが立ち上がってきたのだ。

(내 안에는 어느샌가 건강한 기분이 되살아난 듯하다. 그것이 친구를 잃고, 일상에 지쳐버린 내 마음이 경험한 자잘한 파도, 조금만 소생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역시 사람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어땠는지 잊어버렸지만, 혼자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마주하고, 깊은 곳에서 너털너털 상처 입고

지쳐 버리면, 갑자기 알 수 없는 강함이 일어서는 것이다.)

(「白河夜船」 『白河夜船』 p.86)

일을 하면서 데라코는 자신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을 살고 무기력해졌는지 깨닫고, 밀려드는 잠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친구를 잃은 상실감과 연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함과 죄책감에 무기력했던 마음은 이제 활기차게 되살아난다.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했다.

「달빛그림자」에서도 상처를 가진 히라기(柊)가 죽은 연인 유미코(ゆみこ)를 만나는 꿈을 통해서 치유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ワタシ、この間見てしまったんですよ。」と柊が言った。(中略)「何を?」と私言っ  
た。「ゆみこ。」彼は言った。私はどきりとした。(中略)「おとといの朝だったか  
な。」彼は續けた。「夢だったかもしれない。うとうと眠ってたら急にドアが開いて、  
ゆみこが入ってきたんだよ。あんまり普通に入ってきたもので、死んでたことを忘れ  
て、ゆみこ?って言ったら、しーって言って人さし指をたてて、笑った……やっぱり、  
夢っぽいな。それから、ワタシの部屋のクロゼットを開けて、セーラー服をていねいに  
取り出して、抱えていってしまったよ。ばいばいって口を動かして、笑らって手を振っ  
て。ワタシは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なくて、また寝てしまった。やはり、夢かなあ。  
でも、セーラー服はないんだよね。どこをさがしてもな。ワタシは、思わず泣いてし  
まったよ。」

(“나 얼마 전에 봤어요.”라고 히라기가 말했다. (중략) “뭘?” 나는 말했다. “유미코”  
그가 말했다. 나는 덜컥했다. (중략) “엇그제 아침이었나.” 그가 계속했다. “꿈이었는  
지도 모르지. 끄덕끄덕 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유미코가 들어왔어. 너무 자  
연스럽게 들어와서 죽었다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유미코?’라고 했더니 쉬-라면서  
집게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웃었어. 역시, 꿈같아. 그리고 내 방 벽장을 열고 세일러복  
을 조심스럽게 꺼내서는 가지고 가버렸어. 안녕이라고 입을 움직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다시 자버렸어. 역시 꿈일까. 그런데 세일러복  
이 없는 거야. 어디를 찾아도 말이야. 나는 그만 울어버렸어.”)

(「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 『キッチン』 pp.223-224)

세일러복은 유미코의 유품으로 히라기가 죽은 유미코를 기억하고 함께 하면서, 슬픔을 견뎌내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세일러복을 입고 있는 한 히라기의 시간은 유미코와 함께하는 했던 과거로 멈춰져 있을 뿐이다. 이런 세일러복을 유미코가 가져갔다는 것은 히라기를 현실의 삶으로 돌려보낸다는 치유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죽은 연인과의 만남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꿈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세계를 연결하여 죽은 자를 기억하게 하고, 남은 자들은 정신적으로 성숙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꿈이라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은형도 “바나나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환영은 죽은 사람, 즉 유령으로 이 유령들은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상처를 서로 치유해 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유령에 대한 이미지와는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 유령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sup>67)</sup>고 말한다. 이처럼 꿈은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바나나의 ‘치유문학’에 걸맞게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키친(キッチン)」(福武書店, 1998.1)에서는 할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미카게(みかげ)는 다나베가(田辺家)의 집에서 너무 오래 신세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집에서 나가려고 한다. 그 때, 미카게와 유이치(雄一)는 같은 꿈을 꾸게 된다.

私は、夢を見た。今日、引きはらったあの部屋の台所の流しを私はみがいていた。何がなつかしいって、床のきみどり色が……住んでいる時は大嫌いだったそのいろが離れてみたらものすごく愛しかった。(中略) 気づくと、後ろで雄一がぞうきんを手に床をふいてくれていた。(中略) 雄一は言った。「うちももう出るつもりなんだろう? 出るなよ。」(中略) 「ぼくだって、えり子さんみたいに思いつきで生きてるって君は思ってるらしいけど、君に家に呼ぶのは、ちゃんと考えて決めたことだから。おばあちゃんはいつも、君の心配をしてたし、君の気持ちがいちばんわかるのは多分、ぼくだろう。でも、君はちゃんと元気に、本当の元氣を取り戻せばたとえぼくらが止めたって、出て

67) 이은형 「요시모토 바나나와 신경숙의 비교연구 -감각표현과 Occult-」(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제28집, 2008.10) p.369



いける人だって知ってる。けど君、今はムリだろう。ムリっていうことを伝えてやる身寄りがないから、ぼくが代わりに見てたんだ。うちの母親がかせぐムダ金はこういう時のためにあるんだ。ジューサーを買うためだけじゃない。」彼は、笑った。「利用してくれよ。あせるな。」まるで殺人犯に自首を説得するような誠意を持って、私をはまっすぐに見て、彼は淡々とひとことひとこと語る。私は、うなずいた。

(나는 꿈을 꾸었다. 오늘 완전히 이사한 그 집 부엌의 개수대를 나는 닦고 있었다. 무엇이 그렇다고, 바닥의 황록색이... 살고 있을 때는 너무 싫었던 그 색이 떨어져서 보면 대단히 사랑스러웠다. (중략) 눈치 채면, 뒤에서 유이치가 걸레를 손으로 마루를 닦아 주고 있었다. (중략) 유이치는 말했다.“집도 이제 나갈 생각이지? 나가지마.” (중략) “나 말이지. 에리코씨처럼 즉흥적으로 살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너에게 집으로 부른 것은 꼼꼼히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니깐. 할머니는 언제나 너의 걱정을 했고, 너의 기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마 나일 거야. 하지만 너는 제대로 건강하게 진짜 건강을 되찾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멈추어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너, 지금은 무리일 거야. 무리라고 하는 것을 전해 줄 친척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에 보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버는 쓸데없는 돈은 이런 때를 위해서 있는 거야. 주서기를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그는 웃었다. “이용해 줘. 서두르지 마.” 마치 살인범에게 자수를 설득하듯 성의를 가지고, 나를 똑바로 보고서, 그는 담담하게 한 마디 한 마디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キッチン」 『キッチン』 pp.59-61)

꿈에서 유이치는 혼자 살려고 집을 나가는 미카게에게 아직은 혼자서는 무리이니 집을 나가지 말라고 설득한다. 그리고 미카게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고 진짜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자신과 에리코를 이용하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이 꿈을 통해서 유이치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전하고, 그 진심은 미카게에게 전달되어 상처가 아물 때 까지 다나베가(田辺家)의 집에 머물게 한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전해지지 않는 것들도 꿈은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꿈을 통한 소통으로 유이치가 미카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미카게는 유이치의 진심어린 마음으로 위안을 얻고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가는 계기가 된다.

두 사람이 동시에 비슷한 꿈을 꾸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꿈속에서 했던 행

동이나 서로 나누었던 대화 등 똑같은 장면을 꾸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과 비현실의 교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나나에게 있어서는 꿈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일 것이다. 바나나는 물질적인 세계를 추월한 꿈의 차원을 통해서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소통의 주제는 바로 치유이다. 바나나의 작품에서의 소통은 치유로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나나의 작품 속에 그려지는 꿈은 다양하다. 무의식적 감각과 그로 인한 기억이 재생된 꿈으로 미래의 일을 암시하거나, 환영의 역할과 같이 죽은 사람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등 인물들의 내면상태와 맞물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바나나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꿈을 통해서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거나, 소중함을 깨닫는 등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 Ⅲ. 결론

지금까지 요시모토 바나나의 「백하야선」을 중심으로 바나나 문학에 있어서의 잠의 의미와 꿈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바나나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죽음과 재생’, ‘상처와 치유’, ‘가족’, ‘오컬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나나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이긴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백하야선」을 중심으로 바나나 문학에 있어서의 잠과 꿈에 주목하였다. 잠의 형태로 본 ‘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꿈의 양상과 꿈을 통한 인물들의 내면상태의 변화를 통해 바나나 문학 속의 ‘꿈’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론의 1장에서는 꿈의 의미와 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꿈은 자신에게 주어진 외부의 자극이나 억눌린 욕망, 감정, 불안, 공포, 그리고 기대와 소망 등에 대한 무의식의 표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내면상태, 심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또한 꿈의 특징으로서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꿈의 예시적 측면이다. 이는 바로 무의식이 의식의 제약을 넘어서서 훨씬 넓고 먼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신이 간절하게 바라는 미래의 소망이 꿈으로 예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꿈이 가지는 내면의 심리 표출과 예지는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성격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문학 속에 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풍부한 기호성과 상징성을 가진 꿈은 특히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왔다. 신화와 전설, 고전소설에서 꿈을 통한 사건전개는 고대 소설의 결점이라 할 수 있는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자연스럽게 전개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바나나 작품에서도 사건의 전개를 이야기는 필연적이고 연속적인 사건들의 전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가 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바나나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세계와의 공존을 꿈

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바나나의 작품 속에 나타난 꿈도 고대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예시적인 꿈과 현대 소설에서의 소망과 불안 등 심리를 반영하는 꿈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바나나의 작품에서 꿈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작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백하야선」에 나타난 잠에 주목하여 등장인물의 잠의 형태와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데라코의 과잉된 잠의 원인은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연인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연인의 아내에 대한 죄책감 등 현실에서 오는 복합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의 고통과 불안함을 잊을 수 있는 도피의 수단으로써 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잠이 과잉됨에 따라 잠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와나가의 아내가 식물인간인 상태로 계속되는 잠을 자는 것과 같이 데라코의 심해지는 잠의 침식은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나가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의식 없이 병원에서 잠든 채 조용히 숨만 쉬는 식물인간 상태이다. 잠을 죽음의 또 다른 일면으로 봤을 때, 영원한 잠을 자는 식물인간은 죽은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나가의 아내의 잠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잉된 수면으로 죽음을 의미한다. 시오리의 잠은 상처를 입고 지친 사람들을 편안한 잠으로 인도하고, 꿈의 공유를 통해서 타인의 고뇌를 흡수하여 그들을 치유한다. 하지만 정작 시오리 자신은 치유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시오리의 잠은 자신의 희생으로 타인을 위로하는 치유의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백하야선」에 있어서의 잠은 현실 도피의 수단과 치유라는 긍정적 의미와 계속 이어지는 과잉된 잠은 곧 죽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4장에서는 바나나 문학에 나타나는 다양한 꿈이 양상에 대해 고찰했다. 바나나 작품 속에 나타난 꿈은 다양한 양상을 반복하며 보이고 있는데, 이는 꿈이 바나나의 작품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백하야선」에서는 죽은 시오리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현실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데라코의 소망이 동기로 작용하여 꿈에서 시오리를 불러들이고, 「밤과 밤의 나그네」에서도 마리에가 죽은 요시히로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소망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

고 불안함이 무의식에 반영되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암리타』에서는 남겨진 자의 상처와 불안감이 꿈으로 표출되고 있다. 꿈에서 모두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면서 느꼈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꿈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꿈은 소망과 불안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달빛그림자」에서 사츠키는 꿈에서 죽은 히토시를 만나고 그녀의 소망을 이룬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는 히토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꿈은 자신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주는 동시에 현실을 더 잘 알게 하기도 한다. 한편, 꿈은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가교역할을 한다. 꿈을 통한 소통은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적인 꿈을 통해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통의 한 부분으로 예지를 들 수 있다. 「밤과 밤의 나그네」에서 마리에는 시바미가 죽은 요시히로를 만났음을 꿈으로 예지한다. 실제로 시바미가 만났던 것은 요시히로가 아니라 요시히로의 아들이지만, 죽은 요시히로를 꼭 빼닮은 아들이 그를 대신한다고 했을 때, 마리에는 이 예지적인 꿈을 통해 살아있는 요시히로를 발견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마리에와 시바미는 요시히로를 잃은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꿈을 통한 소통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 살아가는데 있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죽은 자’, 즉 현실세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자가 환영으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고 위로하기도 한다. 「백하야선」에서는 식물 인간인 이와나가의 부인이 테라코의 꿈에 나타나 그녀를 위로해 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 「달빛그림자」에서도 상처를 가진 히라기가 죽은 연인 유미코를 만나는 꿈을 통해서 치유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꿈을 통한 소통이 진심을 전하고, 그 진심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듯이 죽은 연인과의 만남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남은 자들을 정신적으로 성숙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바나나의 작품 속에 그려지는 꿈은 무의식적 감각과 그로 인한 기억이 재생된 꿈으로 미래의 일을 암시하거나, 환영의 역할과 같이 죽은 사람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등 인물들의 내면상태와 맞물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바나나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꿈을 통해서 상처받은 내면이 치유되기도 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등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간

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바나나 작품에 나타난 잠과 꿈은 다양한 양상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나나가 최근까지 작품을 내고 있는 반면에 본고에서는 바나나의 초기 작품을 위주 하고 있고, 작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나 최근에 발표된 바나나의 작품과의 비교와 분석이 미흡하다. 그리고 다른 현대 작가들은 꿈을 어떻게 형상화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나나 작품에 나타난 꿈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비교 분석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바나나 작품만이 가지는 독특한 꿈의 세계를 고찰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 앞으로 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바나나 작품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바나나작품만이 가지는 꿈의 양상과 의미를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텍스트>

- 吉本ばなな 『白河夜船』 (福武書店, 1989.7)
- \_\_\_\_\_ 『キッチン』 (福武書店, 1998.1)
- \_\_\_\_\_ 『アマリタ(上)』 (福武書店, 1994.1)
- \_\_\_\_\_ 『アマリタ(下)』 (福武書店, 1994.1)

### 1. 국내문헌

#### 【단행본】

- 디어더 배럿 지음 · 역자이덕남 옮김 『꿈은 알고 있다』 (나무와 숲, 2003.7)
-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 안병웅 옮김 『꿈의 해석』 (폴빛, 2006. 9)
- 이부영 『분석심리학- 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8.9)
-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지음 · 권오석 옮김 『고전으로 미래는 읽는다  
022-무의식의 분석』 (홍신문화사, 2011.3)
- 홍순래 『현실 속의 꿈이야기』 (내일을 여는 책, 1996.6)
- 신동훈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 2009.10)
- 이혜원 『세기말의 꿈과 문학- 이혜원 평론집』 (하늘연못, 1999.11)
- 폴 마틴 지음 · 서민아 옮김 『달콤한 잠의 유혹』 (북스캔, 2003.7)
- 로버트 롤런드 스미스 지음 · 남경태 옮김 『소크라테스와 아침을』 (마젤란,  
2010.4)
- 매브 에니스 · 제니퍼 파커 지음 · 장석훈 옮김 『꿈을 잡아라!』 (궁리출판,  
2003.1)
- 캐스린 흠 지음 · 한창엽 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4)
- 가스통 바슐라르 지음 · 김웅권 옮김 『꿈꿀 권리』 (東文選, 2008.7)

【논문】

고미영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속에 나타난 가족 붕괴의 의미 : 제 1기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6)

이준언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암리타(アムリタ)』론: 작품에 나타난 오컬티즘 분석」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8)

최상희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초기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재생 연구 : 『키친(キッチン)』·『만월(滿月)』·『달빛그림자(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김영주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키친』 고찰 : 죽음과 그 치유 양상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8)

권수지나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소설의 모티브에 관한 고찰 : 「키친」·「만월」·「달빛그림자」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2)

김화용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의 '가족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2)

이진이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과 <죽음>」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2)

권대근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꿈에 關한 研究 -黃順原의 作品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9.12)

이은형 「요시모토 바나나와 신경숙의 비교연구 - 감각표현과 Occult」 (「일본문학연구」 v.28, 동아시아일본학회, 2008. 10)

김용안 「요시모토 바나나의 『죽음보다 깊은 잠(白河夜船)』론 - <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34호 2009.5)

조형준 「하드보일드 모더니티 또는 '교양 속물' 비판 :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을 읽으며」 (「세계의 문학」 제28권, 2003.8)

주은연· 홍승봉 「기면증과 과다수면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 (「J Korean Sleep Soc」 vol.1, 2004.12)



## 2. 해외문헌

### 【단행본】

- 吉本ばなな 『夢について』 (幻冬舎文庫, 1997.8)  
\_\_\_\_\_ 『ばななのばなな』 (メタ로그, 1994.1)  
\_\_\_\_\_ 『ば나나讀本 B級BANANA』 (角川書店, 1999.5)  
\_\_\_\_\_ 『ば나나ブ레이크』 (幻冬舎文庫, 2005.8)  
吉本隆明 · 吉本ば나나 『吉本隆明×吉本ば나나』 (로ッキング·온, 1997.2)  
河合隼雄 · 吉本ば나나 『なるほどの對話』 (NHK出版, 2002.4)  
木股知史 『吉本バナナ イエローページ』 (荒地出版社, 1999.7)  
松本孝幸 『吉本ば나나論 — 「フツー」という無意識』 (JICC出版社, 1991.7)

### 【잡지】

- 平田俊子 「大ざっぱに見た吉本ば나나」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1994.2)  
与那覇惠子 「身体性と幻想- 「아무리타」を中心に」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1994.2)  
山全有策 「超能力 =吉本ば나나 」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1996.8)

## 3. 디지털

- よしもとば나나 공식 사이트 (<http://www.yoshimotobanana.com>)

<ABSTRACT>

A consideration of <Sleeping> and <Dream>  
in the literature of Yoshimoto Banana(よしもとばなな)  
-focusing on 「Baekhayaseon(白河夜船)」 -

Lee, So Jung

Major in Japanes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a professor So, Myung Sun

Yoshimoto Banana published essay collection, 『About dream (夢について)』 (幻冬舎, 1994.8) in 1994. There are various mysterious dreams experienced by Banana and the contents are very similar to type of dreams in her novel. Dream of the work is in important position for his awareness and unawareness. Therefore, it can be an important motif for the interpretation of her work. Dream is the space crossed by reality and unreality. For Banana who thinks reality and unreality can be coexisted, dream will be the area to approach the world she intends to express the most easily.

Dream in Banana's work showed various aspects such as exemplary dream shown in ancient novel many times, dream reflected by wish, uneasiness, etc. in modern novel, etc. In Banana's work, contents for dream is often appeared and it can be in important position of the whole stream of the work.

So, this researcher focused on sleeping and dream in Banana's literature. With

the text of 「Baekhayasun(白河夜船)」 published in 1989, meaning of 'sleeping' will be examined with the form of characters' sleeping and meaning of 'dream' in Banana's literature was considered with the changes of characters' inner situation by form of various dreams and dreams in work.

For 「Baekhayasun」, sleeping has positive meaning which is measure and treatment of escapism and negative meaning excessive sleeping continued is rightly death. A hero, Deraco, moves the space of dream so as to forget pain and uneasiness of reality. But, as times go by, sleeping becomes excessive and has another meaning. Like that Iwagana's wife sleeps continuously in a vegetative state, Deraco's excessive sleeping means death. Siori's sleeping lead people tired with damage to convenient sleeping and treat them by absorbing others' anguish through the sharing of dream. However, Siori approaches death without any treatment. Thus, Siori's sleeping has the meaning of treatment which console others with her sacrifice.

Dream of Banana's work, regenerated by unawareness sense and its memory, shows different forms with characters' inner situation by hinting future's matter or mediating communication with died person like the role of phantom, etc. And, characters in Banana's work can treat their mind damaged through the dream and realize the preciousness of daily life, so they endured their damage and lived again.

Thus, sleeping and dream in Banana's work have various aspects and meaning. But, this thesis could neither compare nor analyze for how other modern writers form the dream and how different from dream of Banana's work. It is played as a limitation for considering Banana's own world of unique dream. In the future, studies should research aspects and meaning of Banana's work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modern writer's work and Banana's work.

